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英船·敗殘兵에加擔
巡察中의我船을射擊
英船을崇明島에抑留取調中
一方軍當局嚴重抗議

【上海二十七日發同盟】三月下旬佐藤枝隊가 掃蕩한 揚子江北岸海門附近의 治安은 着着回復되엿스나 아직 敗殘兵이 蠢動한 憂慮가잇스므로 繼續하야 我方은 陸海軍相協力 崇明島로부터 海門附近에 至하는 水陸一帶를 警備中인데 때마침 二十六日午後二時頃 櫻井部隊의 巡邏船二隻이 海門港口를 巡察中 突然 陸上五、六十米로부터 敗殘兵의 小銃에 依한 一齊射擊을 受하엿스므로 곳 이에 應戰하엿든바 附近碇泊中의 支那人 約四百名을 滿載한 英國 자뎬마지산會社所屬船東亞號(一、三〇〇噸)로부터 마치 兩岸上의 敵兵에 呼應함과가티 拳銃의 射擊을 受하얏다 我方은 寡兵이나 敢然 東亞號에 躍入하야 同船을 崇明島에 抑留하고 目下 嚴重取調中이다 一方 軍當局에서는 자뎬마지산會社에 對하야 事態를 자못 遺憾으로 여기는旨의 抗議를 發하는 同時에 今回와 如한 不祥事는 要컨대 第三國이 我作戰地域內에서 不注意한 行動을 繼續하기때문이라하야 將來 此種問題를 未然에 防止할意向으로 斷乎한 處置를 取할것으로 그推移는 重視되고잇다

獨逸에歸屬問題等
체코政府에爆彈的要求
주-데텐·獨逸黨首演說

【칼스바-드發電】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獨逸黨은 過般 칼스바-드에서 年次大會를 開催、連日反政府氣勢를 올리고 잇는바 黨首콘랏드·헨라인氏는 二十四日의 演說에서 在住獨逸少數民族의 要求라하야 左의諸項을 列擧하엿다
▲獨逸少數民族과 체코族과의 平等權承認 ▲獨逸民族의 法律上의地位承認 ▲주-데텐地域의 境界確定과그承認 ▲右地域의自治 ▲주-데텐地域外에 在住한 獨逸人의保護 ▲一九一八年체코建國以來 不當한 取扱을밧든 주-데텐獨逸人에對한 賠償 ▲獨逸聯邦歸屬及 나치스支持에 關한 주-데텐·獨逸黨의 綱領의自由。

체코國內의獨逸人
本國에合倂不可避

【伯林廿七日發同盟】주-데텐黨 헨라인黨首의 爆彈宣言을契機로 체코슬로바키아少數民族問題는 俄然 急轉向을보이게되엿는바 廿七日 AP通信倫敦支局은 獨逸政府가 주-데텐黨合倂은 時機의問題라는 見解를抱懷하고잇는듯의 센세이슌날한報道를傳하야 注目을끌고잇다 AP通信倫敦支局이 獨逸政府某高官의言明이라하야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주-데텐 獨逸人의 獨逸本國과의合倂은 이미不可避한바로서 남어잇는問題는 이合倂이流血의 慘事를보지안코 實行될수잇슬는지 어떨는지이다 獨逸外交當局은 目下佛國과接近 체코에의 救援을 拒絶한대도 그것은 如何한條約에도 違反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佛國에 諒解시키려고 苦心하고잇다

英佛會談의 對策協議
英定例閣議開催

【倫敦二十七日發同盟】英政府는 二十七日午前定例閣議를열고 同日午後부터 開始되는英佛會談에 對한 英國側의提案全般에 亘하야 最後的檢討를加하엿는데 特히체코問題가 論議의中心이되어 스데텐獨逸黨 黨首헨라인氏의 爆彈宣言을契機로하야 數日來急角度로 惡化되고잇는체코의國內情勢에關하야 할리팍스外相으로부터 詳細한說明이잇슨後 英政府의對策에關하야 愼重協議를거듭한模樣이다 그리고 同日의閣議席上할리팍스外相으로부터 二十六日아브놀聯盟事務總長과 블만佛大使와의 會談結果에關한報告가잇섯는데 이것으로보면 次期聯盟理事會에서 에디오피아倂合承認問題에關하야 英佛及聯盟當局間에 重要한協議가잇슬模樣이다

靖國神社臨時大祭
廿八日로全部終了

【東京電話同盟】四千五百三十三柱의 英靈이 九段의 社頭에 길이 永久히 神鎭하옵는 靖國神社臨時大祭最終日인 二十八日은 昨夜부터의 降雨도 것고 개여서神苑은 早朝부터 參拜者가 玉砂利를 밟는소리가 爽快하다 境內에는 奉納大씨름도 擧行되여 昨日에 못지안흔盛況을 呈하고잇다 神殿에는 午後三時부터直會의 儀가 嚴肅히 執行되여定刻陸海兩省係官은 通常禮裝에 威儀를 가추고 鈴木宮司와함께 直會祭所에 參進 着床하야 饗饌의 撤도 嚴肅히 降神의 儀 昇神의儀가 擧行되고 本殿의儀로옮겨 宮司係員 禰宜 司以下 玉串을奉하고拜禮 宮司를退下하야 直會所에이르러 古式의 宣詞奏勝勵杯의儀가 擧行 이리하야 臨時大祭는 玆에 全部終了되엿다

惶悚하옵시게도 天皇陛下의御親拜를仰하와 只今은 護國의武臣으로合祀된 我父、我夫、我兄、我息과함께 無上의光榮에 浴한九千의遺族은 過去四日間의 感激을 서로풀하며 도라갈것도 이저버리고 언제까지나 머리를숙이고 잇섯다 靈璽는 二十九日부터는 三日間 春의例大祭가 盛大히執行된다

皇太后陛下
白衣勇士에
御菓子下賜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옵서는 恒常皇軍將兵의 勞苦를생각하시사 患者永糖을 下賜하시와第一線의 勇士를 御慰問하시옵섯는데 二十七日다시 白衣勇士를 御慰問하옵시고 陸海軍傷病兵에게 御菓子를 下賜할旨의御吩咐가게시옵서 杉山陸相은同日午後三時 米內海相은 同三時四十五分各各 大宮御所에 御召하시와 拜謁을 賜하옵시고 御目錄으로써 御吩咐를 賜하옵섯다 이御菓子는 기고신御軫念으로特히 少年保護授産事業을 目的으로하는 池袋의 至誠學舍에 御下命하사 謹製되는대로 各各傳達하기로 되엿다御菓子는 에 다치 一個씩으로 意匠에는 富士山에 芳草의 模樣을 配한것으로 革色의 匣에 浮刻된 富士의 靈峯은 陛下께옵서 御日常大宮御所로부터 眺望하옵시는 靈峰이며 芳草의意匠은 御所의 內苑에 버기압신것으로 特別하옵신 御軫念에 依한바로 拜察되여 光榮의 陸海軍傷兵에게는 感激에 넘치는 記念品으로써 永久히 保存할수잇는 御仁慈에 恐懼感激하야 大宮御所를 退下하엿다

坂本男에敍勳吩咐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서는 貴族院議員 海軍中將 坂本俊篤男이 多年燃料事業에 盡力한功績에 對하야 二十八日特別한 御軫念으로 勳一等瑞寶章을 加授하옵시는 吩咐가게시옵시엿다 坂本男은 同日午後三時 海軍省에 出頭 米內海相으로부터 傳達되엿다

海軍中將從二位勳二等男爵 坂本俊篤
敍勳一等授瑞寶章

政府의方針을闡明
政局不安을除去
來一日부터地方長官會議開催
首相以下全閣僚訓示

【東京電話同盟】近衛內閣은 來五月一日東京에 招集되여 二日부터 七日까지의 七日間에亘하야開會될今次의 地方長官會議에際하야 最近政局不安이 流布되고잇는現狀에鑑하야 現內閣의決意를 地方長官에게 徹底케하야 國家總動員態勢의 整備를 眼目으로人心을 새롭게하고 更始一新의 態勢로써國策의遂行을 期하는政府의 方針을闡明하야 政局不安의 除去를 圖謀하는것이 會議의 重要使命으로하고 二日의會議劈頭에行할 近衛首相의訓示를爲始하야 三日의 末次內相訓示 七日間行하게될 全閣僚의訓示는 이點을中心으로 各省所管事項國策遂行에對하야 地方側과協力 戰時下의 時艱克服에邁進하기를 强調키로되엿는바 末次內相은 第二日인 三日午後內務省所管會議에는 特히 自由討議의形式을取하야 먼저 中央側으로부터 今後政府가 斷行할國策遂行의 方針을 闡明 中央地方間에 잇서서 忌憚업는 意見의 交換을 行하기로 되엿는데 이는 從來의 地方長官會議에서 일즉이 볼수업는 特色이다 內相訓示項目의 主點은 大要左와 如히 決定되엿다

一、國體觀念의伸張
一、時局認識의徹底
一、擧國一致의 態勢를完備하야 國民的總動員下에 時艱克服에 邁進할決意
一、內務行政今後의動向과其使命
一、極左、極右取締의 徹底와 治安의確保
一、防空의完備
一、國力伸張의基礎가될 港灣、道路、河川等土木行政의 振興

(寫眞은 近衛首相)

香港、廣東中心
要人往來頻繁
和平工作說等頻傳

【香港二十八日發同盟】去二十六日行政院副院長張群은突然廣東省을訪問하야 余漢謀 吳鐵城等과 會見 國防及行政에關한 中央의指示를주는同時에 廣東省內에잇서서의 政治經濟의實狀을 聽取後 香港에와서 過般來滯在中인宋子文과 會見하야 무엇인지 協議를한 事實이잇서 자못 注目을 끌고 잇는바 去二十五日에는 經濟部長 翁文灝가 南下하야 漢口를 中心으로 張群等과 會談 하고 잇고 立法院長居正 中央委員陳公博도 近近南下할旨로 報道되고 잇스며 一方廣東省主席 吳鐵城은 居正 陳公博과 會談後 漢口로 向하야 重慶으로 가서 廣東省內의 國防及政務의 報告를 할 豫定이라 傳한다 如斯히 廣東을 中心으로 中央要人의 頻繁한 來往에關하야는 여러가지說이잇는바 一說에는 過日行政院長 孔祥熙의 招電을 接하고 香港으로부터 急遽漢口로 向한 上海財界의 有力者 王曉籟 杜月笙等에게서 漢口政府文官之中에 臨流하는 和平運動具體化에對한 蔣介石의 見解를 取하얏다 時局收拾工作에 進出하려는것이라고하며 一方李思浩、吳光新의 從前此方系에 屬하는要人도 二十三日 漢口로 行하는途中 香港에서 張群 宋子文과 會見하고 參劃하고잇든 中이다 그런데 他의一說에는 日에亘한 我空軍의 漢口爆擊에 依한 威脅과 今後의 戰果擴大에依하야 想像되는 漢口放棄가 現實問題로된다면 드디어 國民政府는 湖南或은 廣西에의 後退를 不得已하게되므로 此際에取할 第三期抗戰期間中의 廣東、廣西經濟開發 就中廣西省으로부터 佛領印度支那에 達하는 交通線의 完成을 急히하야 雲南、河內方面에 山積되여잇는 武器의 輸送을 迅速히하야 最後의 抵抗을 試하려고 資金을 捻出中이라고도한다 如何間 香港廣東을 中心으로한 要人의 往來는 자못注目을끌고잇다

빈슨建艦案에
루이스議員反對

【華盛頓二十五日發同盟】米國上院에잇서서의 빈슨海軍擴張案은 二十五日繼續하야 贊否兩派의 對立論이 白熱的討議를 展開하얏는바 贊成派루이스 民主黨議員의 뒤를이어 共和黨쫏슨議員은 빈슨案에 反對하야 如左히 主張하엿다

빈슨案은 米國艦隊가 米國本土로부터 數千哩떠난 外國까지 渡洋作戰을 行할수잇게하는以外에는 何等의 理由가업다 同案에依하야 建艦을 行하면 米國은 國際外交의舞台에 뒤노는 멋친놈가튼 傲慢非禮한者로 될것이다 어려한일은 米國의 歷史에도 일즉이 前例가업다 萬若 米國이 戰爭의 軍擴을 그만두고 世界의 公正理解를 得하야 좀더 努力을 傾注한다면 世界를 破滅의 慘禍에 引導하지안코 平和에로의 努力의 効果를 더욱 만키할수잇슬것이다 最近 米國의 軍備가 擴充된 結果 米國의 防衛力은 非常히 向上하얏스므로 外國이 米國을 侵略하랴 如何한일은 當分間成功할 希望이업슬것이다

英波海軍協定調印
倫敦海軍條約에模倣하야
質的制限과建艦通報規定
英·他國과도締結交涉

【倫敦二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 일즉이 波蘭政府와의間에海軍協定締結에 對하야 折衝을거듭하고잇든바 이지음 兩者의意見이 一致되어 二十七日午後英國外務省에서 英波海軍協定에正式調印을 마치엿다 新協定은 要務的으로 一九三六年倫敦海軍條約에 模倣하야 質的制限과 建艦通報를 規定한것이다 그리고 英國政府는 同樣의 協定을 스칸디나비아諸國及土耳其와의間에도 締結하려고 交涉을進行하고잇다

【와르소二十七日發同盟特派員發】今回英波間에 海軍協定이 成立되어 二十七日午後 倫敦에서正式調印을 行하게로 되엿는데 右協定은 要務的이며 一九三六年의倫敦條約의 規定을 基礎로한것으로 協定內容은 調印後波蘭政府로부터 發表될터이다

時事解說
複合國家

支那事變이 勃發한後 蔣介石政權이 一途를 밟고잇는 蔣介石政權이 一個의 地方政權化하게되자 北京과 南京에는 이미 臨時、維新兩政府가 各其樹立되엿는데 兩政府는 將次에는 一種複合國家를 形成하리라고 傳하는바 如何한 複合國家를 形成하게될는지 자못 注目된다。複合國家라 함은 單一獨立國家와 對立되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分類하면

(一)保護關係—佛國과 安南과의 關係가 그實例이며

(二)宗主國附庸國—附庸國은 隨從國家 或은 貢納國家라고도하는것으로 羅馬時代의 屬國과 宗主國과의 初期關係 中世封建國家 歐洲大戰까지의 土耳其와 埃及關係等이 그 例이다。

(三)同君聯合—偶然的同君關係와 法律的同君關係의 二種이 잇는데 前者는 各國家의 王位繼承法에 依하야 偶然히 同一君主가 二國以上에 君臨하게된結果로 發生한 結合關係이다 西班牙及大英帝國의 關係가 一의實例이다 後者는 各國의 合意에依하야 同君關係로 一九〇五年까지의 瑞典、諾威、歐洲大戰까지의 墺太利、匈牙利國關係等이 其實例이다。

(四)國家聯合—聯合의 [illegible] 一八〇六年—一八一三年間의 萊因同盟、一八一五年—一八六六年間의 獨逸聯邦、一七七六年—一七八七年間의 北米十三州聯邦、一八一五年—一八四八年까지의 瑞西同盟等이 其實例이다。

(五)聯邦—例를들지안하도 이미우리가 잘아는바로 米國、瑞西、墨西哥、伯剌西爾、亞爾然丁、蘇聯、加奈陀、濠洲、南阿弗利加等 相當히 多數의國家가 이聯邦의形態를 取하고잇슴을 본다。

海軍豫算
루大統領署名

【華盛頓二十七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압서兩院을 通過한 一九三八—三九年度海軍通常豫算案에 署名을完了하엿다 豫算總額은 五億四千九百二十二萬七千弗의 巨額에達하야 平時未曾有의 膨大海軍豫算인바 그主要한內容은如左하다

▲新造艦豫算 主力艦二隻 巡洋艦二隻 驅逐艦八隻 潛水艦六隻 掃海艦一隻 驅潛艇用母艦一隻 給油艦一隻
▲繼續費豫算 主力艦二隻 航空母艦三隻 巡洋艦八隻 驅逐艦四十三隻 潛水艦十六隻 水上機母艦一隻 驅逐母艦一隻

總額一千萬磅의
國防公債를發行
濠洲議會에法案提出

【캔베라二十七日發同盟】極東不安情勢에 對應하야 軍備의 擴張에努力하는 濠洲聯邦政府는 今回 다시 巨額의 國防公債를 發行하기로되어 二十七日 總額一千萬磅의 國防公債法案이 케-시-藏相으로부터 聯邦議會에 提出되엿다 右一千萬磅中 政府가 即時施行하려는것은 四百萬磅인바 法案提出에 當하야 케-시-藏相은 國防計畫을 說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政府는 國防關係事業費로 今年度五百二十五萬磅의 支出을 豫定인바 다시 明年度에 잇서서는 그額이 七百五十萬磅에 達할터이다 이리하야 今後三個年間의 國防關係費는 槪算 四千三百萬磅에 達할터이다

一方라이온스首相은 政府의 國防委員會設置를 如斯히 發表하엿다 政府는 各方面의 人材를 網羅하는同時에 모든 分野에잇서서의 事業活動의 組合을 圖하기爲하야、陸、海、空軍과 公用者及勞働組合代表로 되는 特別委員會를 設置할計畫이다

揚子江北岸
要衝連攻
佐藤枝隊勇躍

【上海二十七日發同盟】揚子江北岸江蘇省의要衝인 通州는 上海에미치는 政治經濟的影響이 重大함에鑑하야 去三月十七日揚子江北岸에 上陸하야단숨에 通州를 占領한佐藤枝隊는 其後如皐、海安、曲唐鎭、富安鎭、海門等에戰果를擴大하야 三月二十五日에江蘇省中部의 要衝東臺를 占領하엿는데 前方에는 아직도 相當한 兵力을가진 敵이蟠居抵抗하는關係上 그掃蕩을 期하야 所要의兵力으로써 同方面에 進擊시키기로되어 佐藤枝隊는 그先遣部隊로서 去十七、八日頃勇躍東臺를 進發數十隊에 나노여北方으로 向하야 行動을 일으키어到處에서 抵抗을 試하는敵을擊破하며 晝夜兼行의 强行軍을하야 昨二十六日東臺北方七十키로의 鹽城附近에 到達 同方面에는 凡四千의敵이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잇섯스나 이를擊破하고 二十六日夜 그一角을占據 同夜十時에는 [illegible] 二十七日 午前一時 [illegible] 南門을占據하고 同日午前中에 鹽城一帶를 掃蕩하고 [illegible] 意氣를 [illegible] 方의 敵도 [illegible] 으로이를 擊破코저 奮戰中이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二十八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五十分 首相官邸에서開會 近衛首相以下 全閣僚出席 먼저 賀屋藏相으로부터 [illegible] 所感에 對하야 詳細한 報告가잇스며 地方長官會議에서 近衛首相의 訓示草案을 附議決定하고 뒤니어 北支問題、中支新政權問題에 對하야 風見書記官長으로부터 中支振興會社設立委員의 任命에 對하야 說明要求한바 各閣僚 異議업시 이를 承認하고 正午散會하엿다

官吏制度改革案은
來三日閣議에上議

【東京電話同盟】官吏制度改革案은 二十八日의定例閣議에 提出되어 各閣僚의意見을 듯기로 豫定되엿든바 當日의形便에依하야 閣議에上程되지못하게되엿다 그理由에關하야 政府側은 時間의形便으로 上程되지못하얏스나 次會五月三日의閣議에 上程한다고하엿스나事實은 法制局立案의 官吏制度改革原案이 顯著히 後退하야革新性이稀薄하야젓기때문에 閣內에도不滿을가지는者가잇스므로 二十八日의 閣議에 上程함은 一日保留하고 다시 原案에 關하야 立案當局인 法制局에서 檢討를 加하게 되엿다고 보인다

警察部長會議
朝鮮外參列者

來五月二日부터 總督城府에서 開催되는 各道警察部長會議에 內地及滿洲側으로부터의 出席者는 左의 諸氏이다

拓務省警務課長 中野 勝次
內務省警保局事務官 上野 健太郞
間島省警務廳長 神岡 靜太
關東憲兵隊司令部副官 田方 謙二
滿洲國治安部警務司人事股長 三宅 秀也
安東省警務廳警務科長 福地 家久

本社參觀

▲京城三阪小學校生徒七〇名 沈宜鶴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金一顯氏(光州地方法院長興支廳檢事) 五月四日午前十時四十五分京城驛發赴任豫定
▲林慶鎬氏(保健朝鮮社主幹)新任人事次來社
▲鹿子木日出雄氏(日本電報通信社理事企劃部長)滿洲北京視察途中廿八日人事次來社

八面鋒

◇ 特産品展覽會에 對한 社會의 批判을 들으면 手藝品에 鄕土的 雅趣가 깁다거니、

◇ 流行界의 潮流가 될지니 映畵俳優에 着用케함이 適當하다거니、

◇ 明日의發展策은 大衆의 實用化에 잇다거니 好評嘖嘖。

◇ 鄕土演藝大會에 對한 批評은 日、藝術的 價値보다도 先人의 준 遺物이니 保存할 價値가 잇다 하며、

◇ 現代人은 純粹하고 素朴한 藝術보다 로만스的 藝術을조와하니 드라마的으로 加味하야 興行的으로 하라고。

◇ 모다 至當한 말슴。업서질 러는 몰건을 保存하고、幼稚한것을 改良、向上시키자는것이 本社의 意圖。

◇ 英國豫算이 작으만치 百六十億。

◇ 살림이 크면 사람도 나라도 保守的。

優良講義錄推奬
中學講義錄 見本無代進呈
獨學青少年大喜び
軍人志願 巡查受驗 自動車受驗 藥種商受驗 鐵道志願
東京市牛込區台町八 大日本通信中學校

ケチャップ
カゴメ
모-든料理에 져서맛
엇재든수세요!
和食 洋食
滋養豐富 トマトの調味料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연주창
新發見 效力百中、服用容易、無痕完治
『연주창專門藥』 第一 清化丸
藥價(完治) 販賣所 京城藥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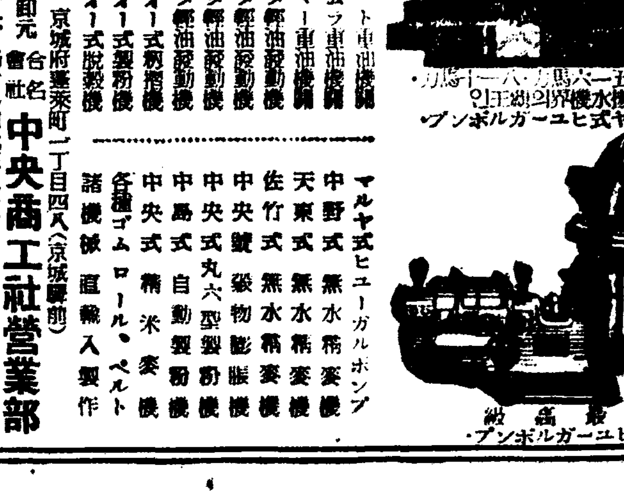
針と三菱ミシン

待望の優秀한 國產ミシン!
三菱ミシン針
三菱商事株式會社
三菱電機株式會社
三菱ミシン陳列場 京城府鐘路二丁目 永保ビル 電話光化門(3)1437

腫症仙藥 趙膏藥

效能 ○모든부스럼 ○모든종기 ○유종 ○담종 ○오래부스럼 ○탐결니는데 ○멍울슨데 ○낙상어혈 ○견비요통 ○귀타무명종 ○독어신흠
누가아무런말하거나 종기어떤 반드시 『됴고약』을 부쳐 십시요 성종후부 치여합창에 쌔르고 종기 서초에부치면 곳가라안 습니다 나어서흔적업시 곱게안그는것도 『됴고약』 아니고는 볼수업는 특장이 올시다
藥價 五錢、十錢、二十錢
發賣元 天一藥房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救急靈藥 天寶水
備常家庭時常非
식상、토사、곽란、구기、주취、두통、기울、중서、중한、수토불복、선차현훈
▲代理店特約店、配置賣藥大募集
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發賣元 平壤永生堂製藥社
定價 三圓·五圓
▲五大名藥
一、崔氏秘傳膏
一、胎養調經湯
一、ネツピリン
一、滅擗水其他
各種製藥本舖



注文·特約·殺到!! 奉仕的大廉賣(優良한機械를廉價로購入하시라면 먼저弊社로御照會하시요!(勿失此好期)·아직도特約店未定地는時急申込하시요
營業科目
ゼット重油發動機 マルヤ式ヒユーガルポンプ
ウエムラ重油機關 中野式無水籾麥機
ヤンマー重油機關 天東式無水籾麥機
クボタ輕油發動機 佐竹式無水籾麥機
トミタ輕油發動機 中央號穀物膨脹機
ヨシタ輕油發動機 中央式丸穴型製粉機
マスダ輕油發動機 中島式自動製粉機
ホーオー式籾摺機 中央式精米麥機
ホーオー式製粉機 各種ゴムロール·ベルト
ホーオー式脫穀機 諸機械直輸入製作
動力農具問元 合名會社 中央商工社營業部
京城府臺寮町一丁目四八(京城驛前)
特約店大募集、御照會次第見積書送呈

朝鮮獨特의"땅재조" 人氣의大旋風!

神奇한才操와律動은恍惚境

第一演藝場서는沈淸傳全唱

本社主催 特産展 第四日

第一演藝場

본사주최 최의고악가무(古樂歌舞)대회는 지난이십칠일밤 일곱시반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천명의관객을 어엿것는데 근래에 보지못하든 대성황을 이룩고 제이일인 이십팔일밤일곱시반부터는 심청전(沈淸傳)의전곡을 창극으로 상연하게되엿다 심청전은 춘향전과함께 고전(古典)의 쌍벽을 이루고잇는것인데 이것역시 조선의 일류명창들이 부르게되엿다 김연수(金演洙)김여란(金如蘭)임방울(林芳蔚)박녹주(朴綠珠)이동백(李東伯)김창룡(金昌龍)등제명창이 이위대한 고전음악을기위하야 목청을 가다듬고잇스며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의중진으로 명고수의 중흥을밧는 정원섭(丁元燮)씨가 출연할터이므로 이밤의 찬란한 성과는 영원히 고악상에 금자탑을세울것이다 그리고 요기에더욱감격할사실은 이밤에는 방송을위하야 오래동안 병석에누엇던 명창송만갑(宋萬甲)씨가 비상한용기를내구름무대에올라서 최선을다하게되엿는데 이밤에 부르는 그의노래가 그의절창(絶唱)이되지나안흘가하고 여러방면의 이야기거리가되고잇다.

第二演藝場

이와병행하야 제이연예장(演藝場)의 민속예술대회는 련일련야 대만원을 이루울뿐아니라 각방면의화제를 이르키고잇는데 금야십칠일부터는 출연기명수리정업(李正業)씨와 김봉업(金奉業)량씨가 "땅재조"라는것을 하기로되엿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아모데도소개되지안흔것으로서 신기한재조와률동나운 동에는 보는사람으로하야금 황홀케할것으로 민속예술대회의인기는 장안에크다란회오리 바람을 이르키고잇다

"手工業好資料로"

宗教教育、各界名士의 讚辭宏壯한特産品展

본사주최 조선특산품 전람회의 인끼가 날로 노파가고잇다함은 연일보도되는 관람자의 답지로만도 알수잇거니와 어번전람회가 이가티 인끼를 끌고잇는것은 단순한 손님을끌기위한 물품의 나열이라든가 자가선전을위한과장이업고 그내용이 조선특산품의 역사적 과정을 알리는 동시에 아프로 어떠케되리라는 밀접성을 암시하는 큰역할을하고잇다는 견해를가진사람이 만흔까닭이다 따라서 작지에 보도한바와가티 각교육기관에서 큰관심을 가지고잇는것은 말할것도업고 이십팔일 회장을 차저온사람들을 통하야본결과 부내각상점에서 판매부 기획부원등 중견층 인물을보내 하나하나 자세한 검토를하게하야 실지연구를시키고잇다 그밧게 종교단체가튼데서도 그들이 구제사업으로 공헌하고잇는 고아원에게 전수할 수공업(手工業)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골몰하고잇다 이리하야 본사주최의 어모힘은 연일 패천의 복바든 남세미태 착착 소기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잇다 회기도 며미 나흘 아프로 여새가 남아잇슬뿐이니 이기회를 노치지말고 조선의자랑 특산품의 지식을 마음것이더해 로동시대의 지혜가 지도기를 바라는것은 네만조치인 본사의 의향만이아니라 각회회원지의 다가되 노기고엿는바이다

□사진은신기한"땅재조"장면□

天長節奉祝

總督府에서御眞影奉拜式後 外國使臣、有力者祝賀도바더

총독부에서는 명이십구일 천장절(天長節)을봉축하야 오전십시부터 제일회의실에서 남총독(南總督)이외국사신(外國使臣) 기타외국인유력자의 축하를받은후 계속하야 총독이하칙임관의 어진영(御眞影)봉배식을 거행할터인데 동이십분부터는 남총독이하 총독부고등관이상과유훈자(有勳者) 조선귀족들의 봉배식이잇슬터이오 동십일시부터는 총독부판임관파 촉탁들의봉배식이잇슨다음 대「홀」에서 총독총감이하 전청원이 총집합하야 냉주(冷酒)를마시며 만세를삼창한후 식을마치기로되엿다

自動車"交協"

決議案六件採擇

전조선자동차교통협회(自動車交通協會)에서는 어십칠일오전열시부터 부내래청각(來靑閣)에서 회원백여명참석아래 정기총회를열고 십이년도결산보고와 십삼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채택하야 총독부、철도국등 각관계당국에요망하기로하고 판게정문가의강연이잇슨다음 동오후 다섯시 폐회하엿는데 파거일년간에 철도경찰사고가 만흔것과 「개솔린」 소비절약의 국책의심각한영향을받고잇는 오늘만큼 사고방지시설의개선합것이라든지회 객자동차임금인상「개솔린」절약량을 한정하지마러달라는등이엇다

提出議案

一、길로事故防止施設改善要望의件

二、貨客自動車料金引上要望에關한件

三、朝鮮自動車運送事業의免許官廳을 統一하여주도록要望의件

四、優良運轉手表彰에關하야 公立自動車學校設置할것을要望의件

五、깨솔린消費節約에關하야 朝鮮의 特殊事情에鑑해 節約額을限定하지안흘것을要望의件

六、全國自動車業聯合會大會를明春朝鮮에서 開催할件

藥窃盜 시내 종로서에서는 수은정(授恩町) 조선상회(朝鮮商會)의 고용인 [illegible]을 인치하야 엄중히취조중인데 그는 조선상회의창고에서 [illegible] 을 여러상자나 훔쳐다가 팔아먹은사실을 자백하엿는데 피해액은 [illegible] 중이다

民間各團體도發奮

銃後報國에協力

皇居遙拜、武運長久祈願、節約等 雜誌도減頁로約十五萬圓節約

어시칠일 총독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어십일일부터 시작된 총후보국강조주간동안에민간에서 행하는 여러가지 행사의 현황은 다음과갓다

▲조선안에서 발행되는 사백수십종잡지의 감페지는 대부분이 삼분지일의 감페지1를 실행하야 약십오만원의 절약이 기대된다

▲특수한 단체의 어주간행사상황을보면

耶蘇教=이십구일천장절에 오전십일시부터 배재중학교(培材)에서 부내에사는 현직목사와 각교회의 대표 신도약천명이모혀 천장절봉축식을거행하는외에 「메도디스트」교회에서는 어식에 참가할것은물론 전조선각교회에 대하야황거요배와 무운장구기원을하도록 중앙에서 통첩을보내엿다

時中會 에서는 저난십오일 전조선 회원에게 대하야 이주간동안에는 매일 국기게양 각가정에서는 매일아침일곱시에 묵도와함께 될수잇는대로 신사참배를할일 종이、무명、연료를 절약하야 저축하도록통첩을보내다

同民會 부내팔개소의 소학교에서 부인강연회를 연다

愛國金釵會 에서는어주간동안 회원을 의치안키로 결의하엿다

에 수회강연회를보내다

天理教=중앙포교관리소로부터 지방교회장에게 대하야 각종인쇄물을 보내며 영화로 시국선전을하는외에 각신도로부터 수지 헌금과위문품도모헌금하기로되엿다

乘車前에發車 老婆落傷!

괘심하빼쓰運轉手嚴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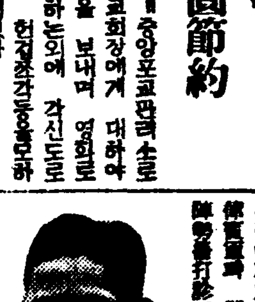
어시칠일 오후두시반경에부내수은정(授恩町)에서 이번지압정류장에서 화동정(花洞町)백삼십팔번지의어사이호 어용신(李容信)이란 노파가 빼쓰에 채오르지안흔때 자동차가떠낫스므로 떠러저서 전치에두주일이상의상처를입엇다 종로서에서는 가해자인 경전운전수 봉래정(蓬萊町)이정목 이백오십일번지 리종구(李宗九)를 엄벌에처하는동시에 시끌서원든지하는 관광객의 잡담으로 전차、빼스사고가 점점느러가고잇는때이므로 경전당국에 엄중한경고를 보내기로되엿다

"比島籠球軍마지하야 延專은이러케싸우겟다"

코―취李性求氏의勝算打診

半島籠球界에 [illegible] 比島籠球團은 明二十九日午後三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全延專과의 第一戰이 열리게되엿다 籠球朝鮮의 名譽를짊어지고 實力未知의 强豪比律賓軍과 雌雄을決할 全延專의 陣營을打診코저 이번對抗戰에全延專의 코―취의重任을마튼 前伯林올림픽 籠球代表 李性求氏를 (延明鍛錄)로訪問하니 氏는다음가튼 戰前覺悟를 披瀝하엿다

比軍이 速攻을主戰武器로삼는것은 伯林올림픽大會에서도 比軍의게임을보고 잘알고잇습니다 그러나 어번來征한팀의 實力에對하야는 白紙임으로兼戰上 困難합니다다만은 比軍도 우리의技能을모를니만치서로臨時應變의 作戰이必要할것입니다 延專의 「스크리닝·플레이」에對한比軍의 防禦가徹底하지못할것으로 假想하고 스크리닝플레이를 만히하려고 합니다 比軍의 防禦法이 「맨투맨」이기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速攻으로 應戰하다가 不利할때에는 [illegible] 作定입니다 지난二月에 早大가 比島에[illegible]할때에도 大의 「조디펜스」에 比島軍들이 처음에는 꽤苦戰을 하엿다합니다 比軍은 「퀵」보담도 個人技術을[illegible]해서 自由스러운게임을 하는것이 그들의 特徵이며 「픽업」한팀이라도 人技의 和合으로 自然히 「팀웍」이 생기는것이라 다 이에反하야 朝鮮籠球는 個人技보다 「팀웍」에 重點을두는만치 「픽업」한팀은 도리어 實力이 주리드는 感이업지안습니다 延專의멤버―는 C金[illegible] F朴榮大 李相勳 G方元濬 金程信等이 第一陣에나아갈 豫定인데 新人朴君에 對한期待가 큽니다 不過四五日밧게안되니 練習不足이 念慮되나 全軍의 技能을 充分히發揮하야 一般의期待에 副하겟습니다



◇延專의陣容=▲監督李源喆▲코―취李性求▲마네저朴寬炯▲主將方元濬(G)▲選手金程信(G)盧元濬(G)金炯元(G)金應鎬(C)尹永哲(C)李相勳(F)朴榮大(F)洪淳奧(F)韓明洙(F)金曦大(F)(寫眞은 李性求氏)

女詐欺師

生男과攘災팔며 許多婦女弄絡三千圓詐取

자칭천리교도(天理教徒)요 여의사인 시내고시정(古市町)십오번지사는 김순자(金順子)(三[illegible])는 작년봄부터 경기도토성(土城)을 중심으로 우매한부녀자를 소겨 자기는 천리교도인데 자기한테 공을드리면 난치의병도 낫느니 흑은 아들을낫케하느니하고 기도를드리라고한후에 현금과물품등을 수백원가량 편취해먹엇스며 금년봄부터는 경성시내로도 다니며 역시동일한 수단으로 천여원가량을 편취해먹은것이용산서원에게 탐지되여 이십칠일 오후에 체포되여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는데 현재판명된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한다 취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목하엄중히 취조중이다

京城府町會合併 半數以下로減縮

區域設定變更의權限은府尹 今日府廳에關係者會合協議

경성부내에잇는 이백사십정회(町會)중에는재정상으로나 또는 그지역으로나 약체(弱體)정회가만허서 정설도시제도가、회장발전하여감에따라 당연히、정회로서 마타나갈여러가지 일에대하야 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 정회가 만흔현상이므로 경성부에서는어써한병강화하고그정회규측을 개정하야 부정의 원활을도모하기위하야 정회구역의 합병과 그기구개혁에대한안을 예의고구하고잇든바 최근 드디어그구체안이 성안되엿다 즉 여태까지의 정회는 중앙총대회(中央總代會)에 오십륙개정회이고 본청동부총대회(本廳東部總代會)에삼십삼정회、북부총대회에 사십일정회、서부총대회에 삼십삼정회、용산총대회에오십삼정회강남(江南)총대회에 신칠정회와동부총대회에 이십팔정회로서 합계 이백사십정회이엇는데 이것을정리하야 중앙총대회에 이십사정회로 맨들고 본청、동부에 륙정회 북부에삼십정회 서부에십륙정회 용산에 이십사정회 강남에칠정회 동부에 십륙정회로 맨들어 합계일백십개 정회로합병하게 될모양이다 이와동시에 종래의 경성부정회규정(京城府町會規程)에도일대개혁을 하게되엿는데그중요한것은정회규정제일조별항에규정되여잇는정회구역설정과 변경을할때에는미리부윤의 승인을 어더야된다는조목을 어번에는 아주구역설정과 변경은 부윤이 이를결정하야 고시(告示)만하기로 개정하야 구역설정의 모든권한을 부윤이 갓기로되엿다 이리하야 이십팔일오전열시부터 경성부사 총의원회실에서 좌백(佐伯)부윤과 송도(松島)총무부장 류본(柳本)내무과장 이하계원과 부내각총대회대표자들과 각경찰서장들이 회합하야 정회합병과 그기구개혁안에대한 협의를하엿다 어와가티 추무협의를거처서 최종적으로결정안을 지어개혁강화될 정회들하여금적극적으로 경성부내의재반사무와부정의 협동이되도록할터인데특히방면위원단(方面委員團)과의연락을 더욱긴밀하게하는것과 지난번 부정사건으로 형사문제까지된 북악납세조합(北岳納稅組合)사건도 돌발하엿슴에 비추여 납세조합도 정회가마타보아 그장려금으로정회의경비를 얼마쯤이라도 윤택하게하야 폐단을업새게되리라는데 각정회관계자에게도 이뜻을 전달하야 근근이를 실시하게되리라고한다

合併町會區域 重要部分을決定

경성부내의 이백사십개정회(町會)를 거진 반수로 합병강화함에잇서서 그동안 경성부에서는 중앙총대회를 비롯하야 각총대회의 의견을 충분참작하야 이십팔일에는 각경찰서장과도 협의를하엿는데이와가티 정회의합병강화는그동안부회에서나 일반부민사이에서도 절실히요망되엿이고 현재정회의 빈약한 상태로보아 필연적결과로서 그합병되는 정회의구역중 중요한것은 다음과가치 되리라고한다

통의정(通義町)체부정(體府町)적선정(積善町)내자정(內資町)의 각정회가 한정회로되고

옥인정(玉仁町)통인정(通仁町)누상정(樓上町)누하정(樓下町)창성정(昌成町)의각정회가 한정회로되고

내수정(內需町)도렴정(都染町)당주정(唐珠町)회가한정회로되고

서대문정일정목(西大門町一丁目)과이정목(二丁目)이 한정회가되고

필운정(弼雲町)사직정(社稷町)정회가한정회가되고

효자정(孝子町)청운정(淸雲町)신교정(新橋町)궁정정(宮井町)이 한정회가되고

백목정(白木町)광희정(光熙町)이한정회가되며 안국정(安國町)송현정(松峴町)사간정(司諫町)이한정회가되며 삼청정(三淸町)팔판정(八判町)화동정(花洞町)이한정회가되며 중학정(中學町)수송정(壽松町)광화문통(光化門通)이한정회가되며 낙원정(樂園町)의선정(義善町)경운정(慶雲町)이한정회가되며 원서정(苑西町)와룡정(臥龍町)운니정(雲泥町)권농정(勸農町)이한정회가 되며 계동정(桂洞町)가회정(嘉會町)재동정(齋洞町)이한정회가되며 관훈정(寬勳町)인사정(仁寺町)이한정회가되고 종로(鐘路)일정목 서린정(瑞麟町)청진정(淸進町)이한정회가되고 관철정(貫鐵町) 종로이정목이 한정회가 되고 장사정(長沙町) 관수정(觀水町)종로삼정목이 한정회가되고 훈정정(薰井町)봉익정(鳳翼町)수은정(授恩町)돈의정(敦義町)이한정회가될모양이다

看守瀆職事件言渡

最高懲役一年二月·最低罰金二十圓 檢事控訴업스면被告全部釋放

소위서대문형무소간수 독직사건관계자 고시현(高時賢)등서른여덟명에 관한 증수회(贈收賄)및증회방조등피고사건 언도공판은이십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복포(福浦)재판장주심 행삼(行森)검사관여하에열렷는데 재판장은그들에게 다음과가티 최고징역일년이월로부터 벌금이십원까지의판결을내리는동시에 체형을바든 피고에게는 본형에상당한미결구류일수를통산하고 벌금형을바든피고에게는 미결구류일수를 하루에일원으로 환산하야 벌금에충당하기로되엿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가업스면 체형을바든피고전부는모두 [illegible]게되엿다

▲高時賢 懲役一年二月 追徵金一八〇圓六〇錢▲宋學洋 同一年 一二七圓四三錢▲金順安 同一年 一七二圓二六錢▲金一龍 同一年一月九二圓九〇錢▲朴福龍 同十月 一三八圓四六錢▲金昌成 同八月六〇圓五一錢▲柳錫熙 同八月九〇圓二四錢▲金基紅 同十月八九圓二九錢▲李相喆 同四月(三年間執猶)三八圓三三錢▲南廷熙 同四月(二年間執猶)罰金百圓▲金濟鉉 懲役三月(二年間執猶)追徵金一六圓六六錢▲李應善 罰金百圓▲吳荷燮 同八〇圓 無罪▲沈相弼 同一五〇圓▲李圭璉 同八〇圓(贈賄幇助는無罪)▲李貞淳 罰金五〇圓(贈賄幇助는無罪)▲崔星源 同五〇圓▲梁箕煥 同百圓▲趙聖卓 同四〇圓▲金鍾國 同四〇圓▲趙英濟 同五〇圓▲安肇宝 同三〇圓▲朴能鉉 同七〇圓▲朴升鉉 同四〇圓▲金英鎬 同七〇圓▲黃寅周 同一〇圓▲金重赫 同四〇圓▲朴永喆 同四〇圓▲申鉉殷 同七〇圓▲李忠吉 同八〇圓▲李來春 同七〇圓▲李元吉 同三〇圓▲李容珍 同七〇圓(贈賄幇助는無罪)▲吳一泳 無罪▲小松淺五郎 罰金百圓(橫領은無罪)▲崔高植 罰金二〇圓

鐵道局員

廢物모하獻金

철도국에서는 총후보국강조주간인 오월이일에 계원이 철도편사를 일일이 차저가서 헌신문 잡지 기타불용품을 모하서 그것을 팔어서 국방헌금을 하기로되엿다한다

福溪驛乘務員 宿泊所에火災

【鐵道局着電】 이십칠일 오전한시반에 복계(福溪)철도승무원숙박소의 이웃집에서난불이 올마부터서 연소하야 버렷다한다

今夜의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 ▲同六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城)講演 ▲八時(東)謠曲 ▲八時二〇分(東)小說 (大)社會面 ▲八時五〇分(東)

第二放送 ▲午後六時 라디오學校『누구든지만들수잇는작난감』吳貞蘊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十分 經典講話 田榮澤 ▲同七時四十分 講演『貯蓄獎勵에對하야』總督府財務局長 水田直昌 ▲同八時 라디오小說『處世寶石』金紫英 ▲八時三十分 管絃樂 指揮 洪蘭坡 ▲九時 一、金剛山打鈴 二、將棋打鈴 三、遊年歌 鄭春仁 崔貞植 李忠善

今夜

第一會場(府民舘)沈淸傳全唱의밤 午後七時半開幕 出演 李東白 金昌龍 林芳蔚 金演洙 朴綠珠 金如蘭外數名

第二會場(假設劇場)民俗藝術大會 午後七時開幕 山臺都監、줄타기、곡두각시 盲人才談 땅재조其他

色鉛筆

이봄에보니 소위하이카라신여성의옷지어가 현저히 달리진것이 눈에띄인다▲예부터의옷은바지저고리를 북더하니 껴입으므로 솜처럼 맵시가나기힘들어던것을▲근년신여성은 속옷만은 서양식으로 아주단출하니 입어가지고 어깨에서 허리로흘러내린 상체의 부드러운 곡선미(曲線美)를 여실히 나타내이기에 힘써왓다 ▲그러나 문제는저고리와 치마가본대 떠러져잇는관계로 옷가슴과 허리가 제가끔노는것가티 보이기쉬웟다 ▲겸하야 저고리맵시도 따로찰보이게하자니 크게도해보고 적게도해보고해서 여러가지로 변해온모양인데 ▲이봄은저고리를 약간길게하되 치마허리에 살작붓게하고보니 치마저고리가 맛닿린것가티 몸맵시가그럴듯하게 곡선미를 잘나타내다 ▲몸맵시좋게보려는 신여성의고심도상당하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沿海州 滿洲 黃海 本邦의南海上에 잇고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海上과東支那海上에 퍼저잇다 北支의氣壓은 조금놉다 滿洲와朝鮮은 개여고地方에 따라서 黃沙가잇다 內地는 晴曇이不足이요 東北地方에는小雨가잇다 今夜와明日은흐렷다가개이겟다

各地天候(今朝六時現在) 京城 曇 仁川 曇 江陵 晴 元山 晴 釜山 曇 木浦 晴 全州 曇

昨日最高 一七度五 同最低 八度八 今朝最低 九度九 今日正午 一八度七

柳韓保健部 「紙上病院」設置

滿天下諸彥은利用하시라

今般弊社가 民衆保健事業을 擴張하기爲하야 保健部를 獨立하는同時에 在來의顧問醫師인 刀圭界權威諸氏以外에 保健指導專門醫師를 招聘하야 여러가지 新計劃을 樹立하고 逐次實行하기로 되엿습니다。그第一着手로 新聞紙上에『紙上病院』欄을 新設하고 各患에서 病에對하야 알고저하시는분의質疑에 應答할뿐아니라 適當한醫師를 紹介하기로 되엿사오니 널리利用하시기를 바랍니다。

弊社가十有餘年前부터 民衆保健事業을爲하야 여러가지로 努力한爾來 事業은 日益發展되여 保健運動과 併行하야『柳韓保健』『家庭寶鑑』等의 冊子를續續發刊하야써 此種運動에 一臂之力이나마 도움이되엿슴을 스스로기뻐합니다。그러나 어事業이 如斯히 發展된데는 社會各方面의 聲援과支持의힘이 無限히컷든同時에 그것이弊社事業運行에 一種의推進力이되어 今日과가튼成果를 나타내게된것임을생각할때에 感激의心情을 禁키어렵습니다。

이事業을 아프로 더욱 發展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諸彥의支援에 報答함이될가하오며 倍層努力하려하오니 倍前愛顧鞭撻하심이잇기를 바랍니다。

問議方法 病의症勢의 經過를詳細히게써서 柳韓洋行保健部로보내시면 新聞紙上이나 急한것은 迅速히直接書面으로回答합니다。但貴下愛讀의新聞名을반드시 記入하십시요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 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釋되엇고 發音이正確 (內容見本即送 郵券三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研究會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高等簿記學院(期前)
▲入學願書午後部 ▲各科授業 ▲學則要三錢切手 ▲各官廳、銀行會社、商店等就職紹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八(電話本局五三六〇)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中等科 第一部、二部、三部 ▲入學願書午後部 文官科 巡査、看守受驗準備科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八(電話本局五三六〇)

陰○不感症 男女共用 局○塗布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

아이후

朝鮮特産品展 祝 革新五週年

過度의刺戟에胃腸은허덕인다

消化不良·食欲不振·便通不整은그의愁訴
救護治療와機能强化에治療藥 アイフ를!

우리들의 生活이 時代와함께더욱 複雜해저서 繁忙이더해지면더해질수록胃腸을 刺戟하는경우가 더만허질것입니다마는 特히 今日과가티 平素의 二倍三倍의 勤勞를 必要로하는 非常時局에잇서서는 自然히 心身의 無理强行으로말미아마 過勞不攝生에기울여 胃腸을 刺戟할경우도 만허지기쉬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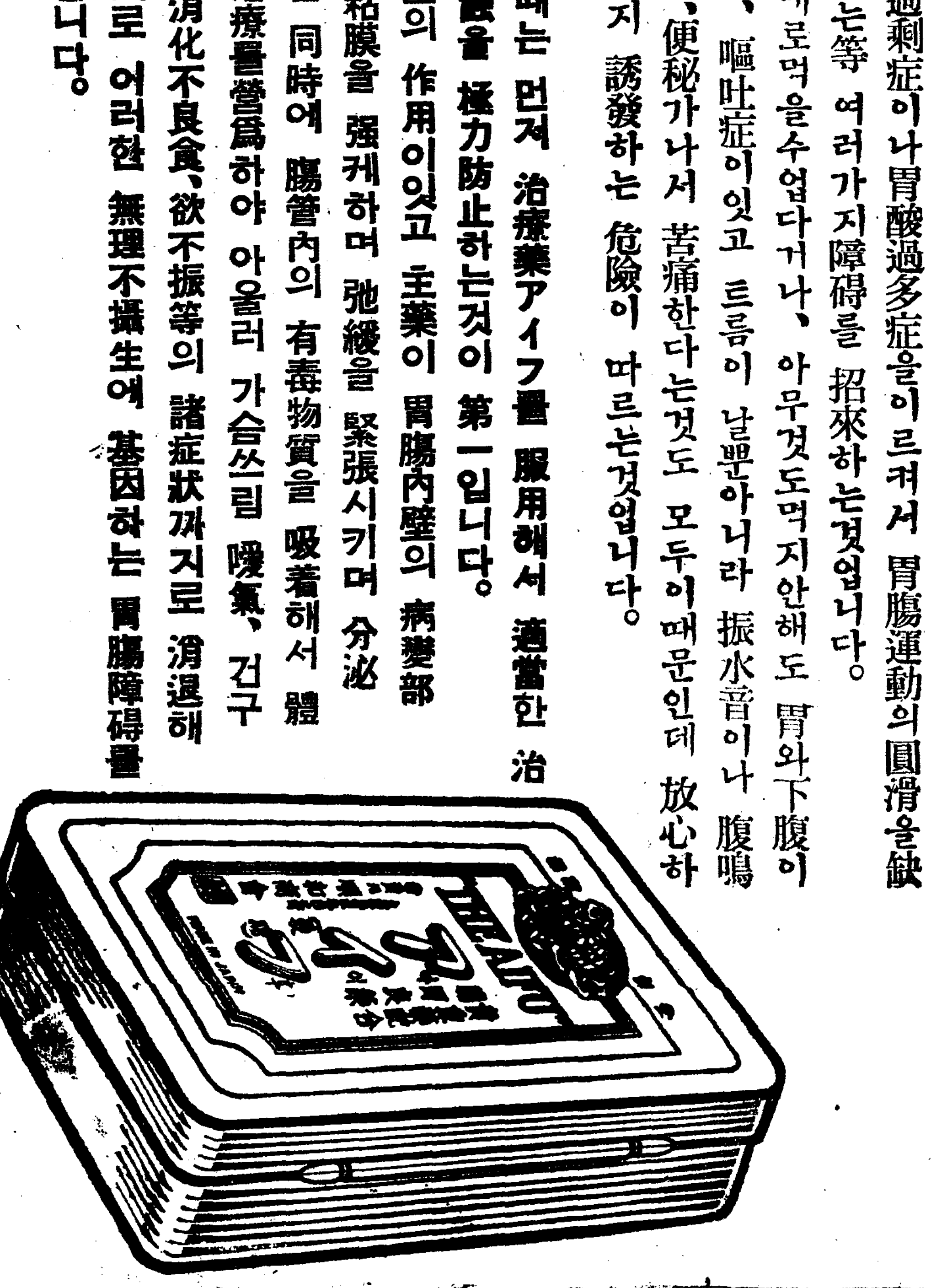
그結果는 消化不良、食慾不振、便通不整等 胃腸機能의 失調를 招來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榮養을害하고 體力氣力까지도 低下시킴에이르게됩니다。 여기에救護治療와 機能强化에 最近 治療藥アイフ가 盛히賞用되는 所由緣이잇는것입니다。

元來吾等의 胃腸壁은 粘膜、粘膜下組織、筋層、漿膜의 各層으로되여 彈力性이 豊富하고 그自體가 非常히 强靭할뿐아니다 알카리性粘膜液苔에 덥혀잇서 消化力이强한胃液에도 侵害되는 일이 업는것입니다。 그러나 暴飮暴食과 咀嚼不充分、食時의 不規則、不消化物、酒、煙草、香辛料等으로必要以上으로 刺戟한다거나 過重의負擔을 課하면 粘膜이거칠어저서 炎症을이르키는 故로 胃腸筋肉이 弛緩해서 收縮作用이 變해지고、分泌神經이 興奮되여 胃液過剩症이나胃酸過多症을이르켜서 胃腸運動의圓滑을缺하고 消化酵素의 分泌를 妨害하는等 여러가지障碍를 招來하는것입니다。

食欲이업다거나、잇서도생각대로먹을수업다거나、아무것도먹지안해도 胃와下腹이 불저서답답하며、가슴이 쓰리고、嘔吐症이잇고 트름이 날뿐아니라 振水音이나 腹鳴이나서 空腹時에는 아프고 泄瀉、便秘가나서 苦痛한다는것도 모두이때문인데 放心하면 慢性症으로되여 潰瘍、癌腫까지 誘發하는 危險이 따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徵候가잇슬때는 먼저 治療藥アイフ를 服用해서 適當한 治療 周到한 攝生으로 病魔의 侵蝕을 極力防止하는것이 第一입니다。

治療藥アイフ에는 病源對症二重의 作用이잇고 主藥이 胃腸內壁의 病變部에 沈着해서 炎症을 治癒하고 粘膜을 强케하며 弛緩을 緊張시키며 分泌와 蠕動機能의 異常을 調整하는 同時에 腸管內의 有毒物質을 吸着해서 體外로 排泄하는等 廣汎한 病源治療를營爲하야 아울러 가슴쓰림 噯氣、건구역、胃痛、腹痛、泄瀉、便秘、嘔吐、消化不良食、欲不振等의 諸症狀까지로 消退해서 機機能의 恢復을 迅速케하므로 어러한 無理不攝生에 基因하는 胃腸障碍를 安全且合理的으로 治療할수잇습니다。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所區吳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重症에는特製アイフ
輕症에는加減アイフ
全國到處의有名藥店에잇습

家庭

경축꽃리에팔
매천는북고
장남특직사
망회산어기

저축해두어야할 팔십억원의돈

이것은전국민의힘으로서될것 먼저씀씀이절약에서

銃後報國 強調週間

전쟁에는총ㅅ대를 쥐고 제일선에서용감하게싸우는 병사도 필요하지만지금 전쟁은무엇보다도 돈이만히야합니다 최후의 싸홈은 결국 경제력에 잇는것입니다.

지금 우리형편으로는 지나사변에 씨우는 경비만해도 뭄직뭄직하게만흔데 그박게도 여러가지 국방(國防)산업(産業)등에 자금이필요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전(長期戰)에 능하겐되여 나가고 또 마즈막 승리를엇는데는 위선 여러가지로 산업진흥을 식히여 국가실력을 충실히하는것박게 다른길이업습니다 산업을 진흥시켜 나라에 돈이만케하려면 자금과 물건만흔자료를 넉넉히 주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나 물자를 외국에서 어더드리기는어려운일이고 지금형편으로는 할수업시 국내에서 이모든 자력을어더내지안으면 안되게되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일반국민이 전처럼 그저 마음노코오잣 호사를 한다든지 쓸데업는 소비를한다면 엇지되겟습니까.

다른물건이 더생겨날수녀은업고 자연 입때까지 여러가지로 모아두엇든것이작고 소비될것이 안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러케 소비만되고보면 자연 군수품(軍需品)을 만드러낼자료도 부족됩니다. 이에따라 나는것은 적고쓰는것은 만흐면 의례물人가가 빗싸지고 그러는가운데 전국민의 경제력은 주러들어가잇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사변 때문에도로혹경기가 조와진편이네 그것은 거이의국비(國費)를 내여노혼것파도시국관계의산업방면의 영향을 바든까닭입니다. 이러한 리유로 일부사람들에게는되려 소득이만흔편이네 그리타고 그것을 잇는대로 다써버려서야 되겟는니까. 어떠케든지 절약해서 저축하는것이 총후에 잇는국민의 할일입니다.

일전 전일본 은행대회에서지금 대장대신으로잇는하옥(賀屋)씨가 지금 시국하에 일본국민은 약팔십억원의 저축을 해야된다고 말햇습니다.

본래 조선안에 모든 산업의자금은 거이다. 일본내지에서 건너오는것인데 지금 이러한 시국을 당해서는 그것도 배우어려운 일인고로 돌가를 조선안에서는 조선안에것으로 자급자족하지안흐면 안되게됩니다 어떠한 여러가지 적세를 생각한다면 웨 조금이라도 쓸데업시 소비를하여 야문이라도 저축을안하겟습니까.

본래 저축한다는것은 그게인자체를 위해서도 조흔일인것은물론이요 또 지금 이떠한시국에 잇서서는 한거름더나아가국가를 돕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것임으로여러분은 더욱 분발하시기를바랍니다.

여러가지생긴 금니대용품

맨들기힘드러그러처 갑싸고조흔강철이빨

무엇이던지 금으로 만들지말라는 법령이 나리자다른 모든것은 그법령대로좃지만 금니는 그대로 두기로 햇습니다.

웨그런고하니 이ㅅ발은금으로하지안코 다른금속으로하면입안에서 분해작용을해서 몸에해독이될으로 다른것으로든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시기에는 인도 금으로하지말고 다른무슨것으로 금을 대용할수는 업을까하고 지금연구를 하는중입니다.

금의합금물

요즘은 십오금이나 십이금이나 혹십금을만드러쓰는 연구가 대단이 성한데 이러한금은 빗갈도 이쁘니라 다트 모든새품으로 만들어도 조흥것입니다.

다음에 금파백금을 석근것즉 「백금파라지ㅣ무」라는게잇는데 이것은 갑이비싸므로 웬간해서는쓰지안코 온파 금을 합한 「오파라지ㅣ무」라는게 잇는데 이것은 쓰기가 조습니다.

금과크롬석근것

요즘만히 씨이는 금속가온데 니켈을만히석근 크롬합금이라는게잇습니다 이것은 이를해박으면 쇠ㅅ독이 나므로 쓰지안는것이 조습니다

알루미늄금

알미늄 동합금(銅合金)의 알루미늄금이라는게잇는데이것은 처보면 순금처럼 빗갈이곱고 반쫘거리지만 역시 이를해박을것은 못됩니다 해가되니까요.

스테인레쓰씨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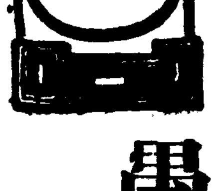
이것은 일홈부터가 동독이 쓸지안는 강철이란뜻인데 처에다가 니켈파크롬을 섞거 만드는것입니다.

이금속으로이를해박기는맨처음 독일서 발명햇는데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중에엇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독일서수입해다 썻는데 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러 쓰게됏습니다.

이것은 갑도 대단히 차서 쓰기가 십상인데 한가지 걱정은 그것을 합금하는데 여간한 기술적으로힘이들지안코 또 잘못해노흐면 그냥 무쇠나 별로 다틀이 업서서 대단히 몸에 해롭습니다.

長篇小說 愚氓【18】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연방의中學生(五)

건너사랑 김씨 집에 학수가 주인을 잡고 잇기도 삼년— 그만하여도 이제는 아주 한집안속이나 진배 업던터이라 하로아침 이처럼 서루 헤여지니 떠나는 마음이 피차에 서러웟다.

점점 한끼라도 내집에서 더 먹고 가달리고 주인내외도 붓들엇거니와 그마음은 학수 역시 일반이여서, 꼴독바 청엉집에서 요리를 시켜다가 유명옥까지 함께 식탁에 참여하엿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인내외는 학수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엿다. 원악이 천성이 착하여 남에게 고마움일 만히 하고, 사람된 품이 으젓하고 양전하여 동히 옭지 안흔곳에는 발을 들려노치 안코, 물론 공부도 착실히 하거니와 타고나온 재주가 남보다 월등하여 장할 학식이 놀라웁다고, 그들은 번차례로 입에 칙이 마춤사이업서 눌러 노핫다.

당자아피라 그리는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수를 사랑하고 잇는 그들 내외는, 그러키때문에 학수가 황해도서 도라오자 난데업시 나타난 유명옥을 매우 께름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엿다. 그러나 물론 학수는, 그러한것에 편하여 별로 변명비슷한 말을 하려들지 안햇다 구경욱어가 올롯세곤데 안오는것이 이상하엿스나, 유명옥이거 이러케 와잇는것을 보이기 실혀, 그는 결국 안와주것이고마웟다고 삭군을 불러와 짐을 지여가지고 그집을 나섯다 그러나 물론 구경욱이와 명옥이가 서루 아는 사이여서 버루 집을 싸느라 부산할때 중문을 들어서려다 말고 구경욱이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돌아 갓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리가업섯다.

여룸에 금강산(金剛山)에라도 구경을 나서거던 활용 쓸려로 자기들을 차저달라고 주인마누라가 문깐까지 쪼차나와 멍번씩 당부하는 소리를 드르며 학수는 수삼배에 꼴목을 빠여저 새집을 차젓다.

그저 열간 남짓한 집으로, 안방 거넌방에 아랫방이 삼간인것을 가운데 「후스마」로 장지를 들여 한간 이간으로 방을 [illegible] 내여 노핫든 [illegible] 으로 [illegible] 대체 누가 들어 잇는지 학수가 거처할곳은 그와 이웃한 이간방이다.

그가 짐꾼을 다리고 마당으로 들어섯슬때, 주인되는 파부마누라는 설둘우에 고무신혜을 찻느라 분주하며,

『일직이 오시는군요. 이를 오째? 여태 방에 불두 못때놧스니……』

마당으로 나려와서, 뒤따라 들어서는 명옥을 잠깐 의아스러히 본다음에, 다시 학수에게

『잠깐 안방에 들어가 게실까요? 온, 이러케 오실줄 알엇더면 불버텁 때는걸』

그리자 빼거 빼거 몸지게소리를 내며 중문을 들어서는, 스물너덧 되어 보이는 머리박바 깍근 젊은 사나이를 보자,

『차서방, 그거 멧지게째야? 불은 천천히 깃구, 어서 아랫방에 불버텁 때주우』

차서방이라는 사나이는 얼른보기에도 사람이 조흔듯지며 번저 학수에게 고개를 꿋떡하고 다음에 여자편을 좀 유심히흘터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도 인사성 잇게또고개를 꿋떡하고 그대로 부여크로 들어가서 물독 뚜껑을 연다.

한데가 그냥 서잇는다는수도 업고하여 주인이 권하는대로 학수가 명옥을 따라 안방으로들어가니까 주인마누라는 즉시걸레를 빨어들고 아랫방으로간다 아궁지에다 불을 지피고 연젓는 차서방의 모양이 안방머마저에 부튼 유리조각으로 빠안히 바라보엿다 몸무게를 달어보면 이십관은 분명히 넘을듯시프데 그것도 그냥 몸집만 크다거나 살만 쪗다는것이 아니다. 틀림업시 오랜동안을 운동으로 단련한 육체다. 그러케 볼도 때고 물도 깃고 하기는 하지만 어쩐지, 행랑아범은 아닌듯시퍼 그러면 무엇일까— 학수가 의아스러히 생각하려니까 어느틈에도 아침에 열직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찬거리 흥정을 해오고, 하더니 남보다 먼저 밥을 먹고 분주히 나가는데 보니까 그러케 나이 먹엇스면서도 제모제복(制帽制服)에 책보를 든 그는 뜻밧게도 휘문고등보통학교 오학년생이 분명하다.

학수는 이 「차서방」이라 불리우는 중학생에게 몹시흥미를 느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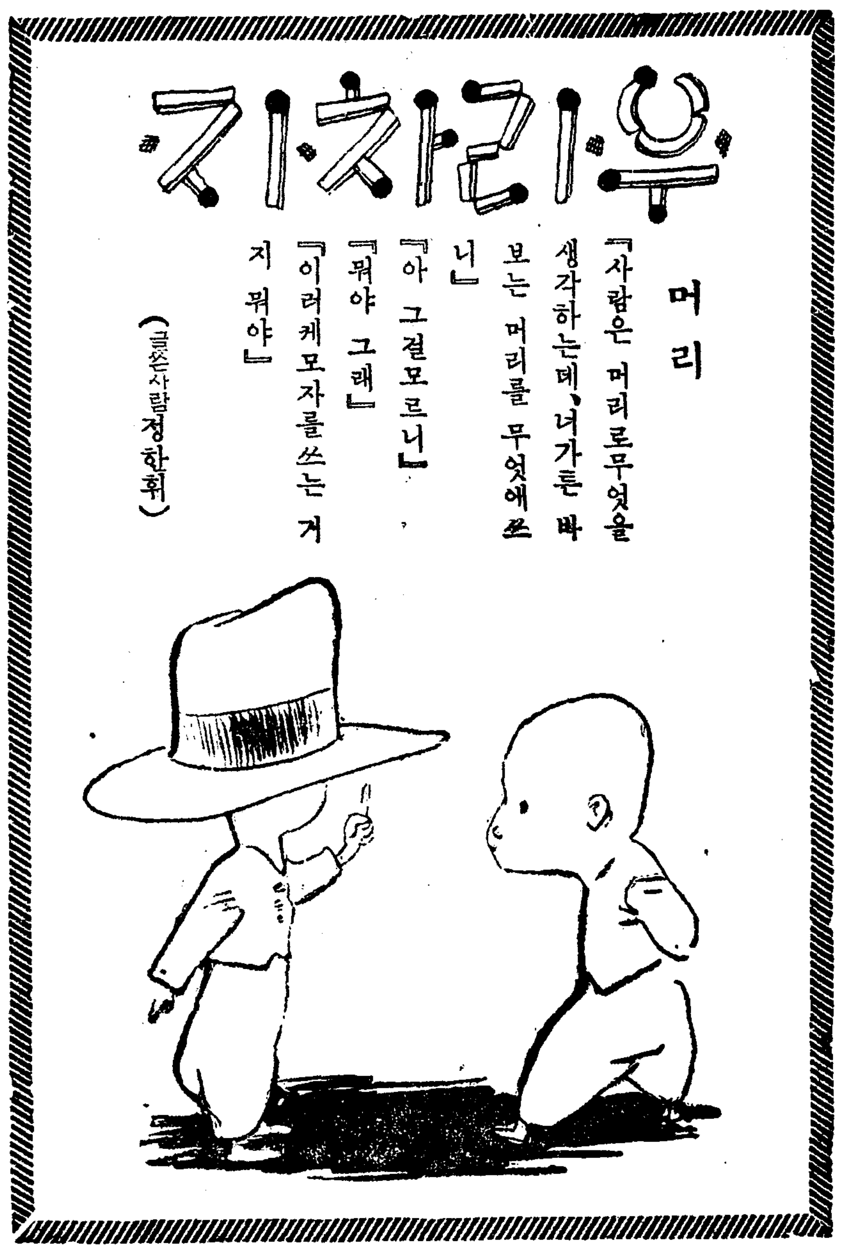
신사의명함

명함을 교화할때에는 아랫사람 즉지체가 야픈사람부터 내노아야하는겝니다 손위사람이면 명함을 아니 내노아도 조흡경우가잇습니다만 명함을 내노든타도아랫사람이 내노은것을 봄뒤에 내노흡니다. 또한가지 함부로 명함을내뿌리면 명함을 구한다거나 또달리엇더거나하는것은 점잔찬은 짓입니다. 명함이란것은 긴한자리 중한자리에 쓰는것으로 아라야합니다.

비누경제되게 쓰는법두가지

비누가 다다라서 꽤꼬마케되면 쓰기귀찬습니다. 그러타고 수채구녕으로 내쏫기는아깝습니다. 그럼어떠커느냐하면 새비누를내어 거기에 찰부처버립니다. 그리면 좋처럼 잘떠러지지도 안허 결국 다닯는록쓰게됩니다.

또한가지 비누를 물까잇는데두면 녹아서 딸이못되며 따라서 불경제입니다. 그러고보면 비누는 한복판에실을 꿰어매다라노코 쓰는것 경제됩니다.



내고장자랑꺼리 ⑥

조산은무엇인가

십삼도방방곡곡에서 울숙불숙잘도나선다

강원도, 황해도

오늘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본시 산이만흔 까닭 거기서나는 산물도 평지에서것과는 다릅니다

◇

느타리버섯

인제(麟蹄)와 창주(主昌)고성(高城)가튼 기픈산골에서 나는 느타나무 버섯은 보기만해도 향기롭습니다. 그러데 산중에서천연으로 나는것도잇거니와 흔은 바레 심어서 따는것도 잇습니다.

◇

잣이 만히납니다

보통집에 귀밝기로 까먹는 잣도 알고보면 죄다 이강원도 심산궁곡에서 오는것입니다. 키가 하늘을 찌르는 잣나무에서 잣송이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송이들을 그대로 쌋하두면 얼마후에는 누러케 됩니다. 그담에 잣알을 까내는데 그맛이야 더말해선 무엇합니까. 어느거잣맛이라니.

◇

약초(藥草)

우리가 보통먹는 한약재료는 거지반 다 이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캐여옵니다. 원약 약이란 기픈산중에서것일수록 영험이더 잇슬게아닙니까.

약에는 여러가지 종류가잇습니다. 여기에 멧가지만 들어보면 산사(山査) 사삼(沙蔘) 도라지 오배자(五倍子)이박게도수업시 만습니다.

해마다 약이백만근 가량나는데 이것은 거지반 서울로 올러옵니다. 그리고 이약이 제일 만히나는곳은 인제(麟蹄) 평창(平昌) 홍천(洪川)등지입니다.

◇

황초(黃草)

지금은 초ㅅ불을 만히 켜지안치만 그래도 굳직한 황초자루에 불을 다려놋는 그 그윽한불 이즐수야 잇겟습니까.

이초도 강원도에서 만히 나는데 품질이 대단히 조와서일본내지에서 사갑니다

꿀(蜂蜜)

◇

칼로 삭악삭 비여낼듯한 진꿀은 달기도하려니와 유명하게 향기롭지안습니까. 어디 요즘설탕에다 비길수잇습니까. 꿀은먹으면 약도되니까요.

그런데 이꿀도 역시 인제(麟蹄) 홍천(洪川) 평강(平康)등지와가티첩첩산골에서만히납니다. 그리고 일본내지로도 팔린답니다.

◇

목탁

강원도ㅣ하면 강원도연금강산이잇고 또금강산엔 수업는절(寺)들이 들어안저 금강산어구에 들어서면 머리를 깍고 중이되여 버린다는 단발령(斷髮嶺)도엇지안습니까.

이강원도야말로 중의본고장이오 그리고보니 중들이 떡떡두들기는 목탁도 여기에서 만히날게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목탁은 유난히도 그소리가 맑고 그윽하야 탑중하는 숙인들도 저마다 사가지고 다닌다합니다.

이제는◇황해도입니다.

이곳에는 오지그릇 만드는흙이 만히나서 자연 오지그릇잡는업이 성하게되니다 지럼도란히 만들지만 장래에도 매우발전하리라고합니다.

이오지에도여러가지가잇는데그것은 화병, 화분등속입니다.

◇

벼루 해주벼루는 자고로 글개나한다는 사람이나 그림장이나 그리는 사람들은 정말 가지고싶어하는 유명하게 조흔돌벼루입니다.

벼루도 꿈고 단단하기도한데 또 만들기를 쎄묘하게 만들어서 아주 보물처럼 위한답니다

조흔맛이나오는 味の素

登錄商標

三〇〇〇倍 느러나는힘! 그런故로經濟

味の素는 實로 三千倍의물에풀어도(味の素一瓦이면 一立의물에풀어도) 맛을알만치 强한 味力을가지고잇는이것니 너누 헤푸게써서 不經濟가안되도록注意하시기바랍니다

特히 鰹節과가튼動物性인 食物에쓰면 한층더 그效力이더해지고그리고一種獨特한 香味가나는것은 問上으로도證明되여잇습니다

가령 찌개를 만들때普通十人分에鰹節이 百五十瓦이들지마는 鰹節을三十瓦으로주리고 百二十瓦의 不足을 단三瓦의味の素로 補足할수잇서 아주經濟되고 맛도굉장히조와 二重의利得이됩니다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朝鮮의鄕土藝術
—簡單한 史的梗槪—
⑥ 宋錫夏

그리하다가 末葉에가서는 蒙古(元)의文物을 輸入하자 (元의文物은 宋의 衣服을模倣하얏다) 儺戱에 이르러는 多少 그의影響은받게되엿다 그러나가장現像은 高麗末에이르러 國內에 醸成된 自家衰弱로 現代로보면 貧弱하나마 高麗李穡(?) 戱劇이 樹立되엿다. (牧隱)의 牧隱集(卷之三十三)에 「自東大門至闕門前 山臺雜劇前所未聞也」라하고 그時에 山臺結綵似蓬萊 獻果仙人海上來 雜類鼓鉦轟地動 處容衫袖隨風[illegible] 長竿倚漢九平地 爆火衝天似[illegible] 欲寫太平眞氣像 老臣簪筆愧非才 라하야 山臺라는말이 비로소文獻에 나오나 現在의 山臺都監하고는 演技의 內容이다른지 觀念도 相當히 距離가잇는것갓다

李朝에 와서는 前朝의 文物을 그대로 繼承되는것이 만흔은 世上이 周知하는바이지마는 이 假面劇도 또한 그대로 繼承하야 中國서 使臣이 올때에는반드시 排設하야 求景케하엿다. 그에對한 文獻은 李朝實錄에 散見된다. 例를들면 世宗戊戌(世宗의即位한해)에 儺禮才가 올때라든지 또 世宗二十一年 冬十月戊申朝條의(卷一百二十六) 曹啓文이 모두 그것이다.

그리든것도 나중에는 年中行事로 變하엿스며 仁祖때와서는 [illegible] 市民所[illegible] 라고 上[illegible]까지한일이잇다. 그럼 에 이儺(?)를 國家에서 直[illegible]시켯으며 [illegible] 對하야는 [illegible] 朝鮮說(五下[illegible]門)에 [illegible] 山者 [illegible] 今世[illegible] 每上使至 [illegible]左右[illegible] 閱新奇 라고하엿슴에 [illegible]하나마 [illegible]의 [illegible]만은 充分히알겟다. 그리고 國家에서 [illegible] 때에는 多分히 政治的色彩가잇섯든것도 말해두고싶다.

이러든 [illegible]도 李朝의末에와서는 官의 [illegible]이 不如意함으로 不[illegible] 뒤에는 「[illegible]」가 올에는 「[illegible]」의 都目을 가지고 京江浦口倉內等의 상사군에게 [illegible]金을 바다서 말군의 生活과 公演의 費用에 充用하얏다. 그리고 楊州의 山臺都監이란것은 예날의 都監[illegible]하고는 全然關係가 업는것이며 楊州[illegible] 사람들이 본바더하던것으로 演技만은 本山臺에게 배왓스나 系統的關聯은 업다. 그럼으로 普通이것을 「楊州別山臺」라고한다. 鳳山의 「탈춤」은 假面舞踊劇에 屬하며 그 由來도 자못오래며 約五六百年의 歷史를 가진것이다. 어亦 이에 [illegible]하는사람은 [illegible]이며 [illegible]關係지못하얏다 所謂 [illegible]人들은 [illegible]한 內容을 말하끄드로 [illegible] 면 이劇者의 스토리及筋은 [illegible] 거지共通한것이다(다만 [illegible]行[illegible]) 出에 相異가잇슬때뿐이다 [illegible]재는 破戒僧을 [illegible]하는데서나 은 破戒僧侶의 戒律을 저버리는 [illegible], [illegible]재는 [illegible]階級인 兩班에對한 諷刺, 셋재는 [illegible]의 多角關係로 家庭에 風波를 일으키는 에로드라마等인데 이두가지가 모두喜劇가 才談으로된것이 特色이며 多分히 쌍소리를 썻스나 뭇속은 그러치도안는다. 그리고 도하나 이를演出하라면 [illegible]에 상좌불을 씌우고 初저녁에서 그이튿날아침까지하는것이 正式이다. 그러나 이亦 時代의 變遷으로 몃時間 短縮하고말엇다. 좀더詳細한것은 다음의 [illegible]를 參照하여주길바라는것이다. 平凡社大百科事典 「朝鮮演劇」・民俗學第三卷第四號 第八號(東京)。 震檀學報 第二號(京城)所載 拙稿。

(사진은 산대도감)

本社主催 特産品展覽會

學藝

作品構成과 陰翳的效果
—五月創作一人一評—(一)
李源朝

李石薰作 『케이트의젊은未亡人』 —女性—

機會잇는대로 해오는말이지마는 批評이라는것이 그目的으로하는것은 指導的인것이다. 그리고도 한 批評의 主體는 批評家의世界觀에잇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엇던批評家가 엇던作品을

批 評할때 가장 完全한形態를 想定하라고한다면 批評家는 모름직이 가장 노픈 世界觀에 비추어서 그作品을끄으러 올리지아니하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러한 때문에 批評은 항상 批評家의 물건이지 作家의 물건이아니라는것은 쉬운말인듯하면서도 또한 批評이란것의 性格을 規定하는데 가장根本的인 命題가 아닐수업는것이다.

그러나 批評이 이러한 指導性을 喪失할때 悲劇은 誕生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批評家가 自己의 世界觀을 保持하지못한다거나 또는 그世界觀의 解說을 마음대로하지못할때 따라서 批評의 方法까지도 倒位가되고 마는것이니 批評은 指導的인것이아니라

解 說的이되는것이고 따라서 批評의 主體는 批評家가아니라 도리혀 作家가되고마는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이냐하면 어떠한 作品이든지 批評의 標準이 作品에노혀지지아니할수업는것이니 批評은 純全히 作品의 技術的方面에 노혀지는것이다.

이러한 悲劇을 짊어진 批評家의 한사람으로서 『女性』五月號에 실린 李石薰氏의 『케이트의젊은 未亡人』을 읽어보기로 하자.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批評家의 世界觀이니 作家의 世界觀이니하는것보담도(事實에잇서서 이作品은 作者부터 世界觀이란것을 그다지 念頭에두지 아니햇다) 이作品의 構成에잇서서 作家의意圖와 그效果를 技術的으로

觀 察해보기로하자. 그러면 이作品에잇서서 가장重要한 포인트가 무엇이냐하면 作品全體를보아서 대략 세개의포인트를 들수가잇다고하나는 『모하메단』의 六旬이 갓가운 老紳士가 아들을 나으려고 가진 발광을 다하다가 맛침내 『엘하사』라는 젊은 美人을 어든지 二年만에 老紳士는죽엇다 그러면 엘하사의 身上에 무슨變化가 이러날까?하는것이 讀者로 하여금 興味를 늣기게하는 한개의 포인트이고 그다음은 아라비아의 구든風俗에 따라서 靑孀은 一生을 守節하지아니하면 안됨으로 엘하사는 三年內이나 空閨를 직히다가 맛침내 브라운이란 英國의젊은 士官을 알게되여서

戀 愛를하게되는것이 한포인트이고 끗흐로는 五十年間이나 궤이든의 宮內에서 奉仕한 『아리』란는 老僕이 젊어서 호래비가되엿스나 『엘하사』의 守節하는모양을 보는것으로 唯一한樂을 삼구잇다가 맛참내 엘하사가 브라운과 戀愛를 하는것을보고 虛妄한 幻滅을늣긴채 나라를 떠난다는것이다

그런데 事實 作者는 이最後의포인트를 이作品의 가장 核心點으로 생각한듯도하다.

그러나 作品이 그體裁上 單純한 流露體가아니고 이러한 포인트를 包藏한것이라면 作者는 萬難을 排除하고라도 그포인트를 도렷하게 낫타나도록하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이다. 그러나이 作品에서보면 이세개의 포인트가 너무나

平 面的으로 敍述되여서 彫刻으로말하면 浮彫와陰翳가 不分明한嫌이만타.

더구나 엘하사가 空閨를 직히다가 브라운이란는 젊은 士官과 戀愛에 빠진다는것은 可能도 한일이지마는 이것을 본 老僕『아리』가 一朝에 去國을 하게되는 動機—그것은『아리』의告白에依하면『젊어서 호래비가된 그로서 엘하사의 수절하는것을 바라보고사는것을 幸福으로아럿섯는데 낫자손이오것을보고 혼자서 시기와 번민을 늣겻슴으로 나라를 떠낫다』는것은 우에서 말한 두개의 포인트와는 多少 飛躍的인 結果인만큼 作者는 이포인트에 無理가업시 도렷하게 나타나도록 며키어하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作 者는 그저 [illegible] 꼿흘 마치것즘으로 [illegible] 作品全體가 수바것할는듯한感이 잇다。이러한 心理小說일사록어데까지나 기괴 파고 드러가지 아니하면 無味한 때문이다.

채롱 ②
=(隨筆)= 李孝石
小說

B氏에게서 나는 여러차례나 晩餐의 대접을밧고 肝油의선물을밧고 해스나 그가 거리의 내집을차저 오기전에는 똑가튼형식으로 가퍼줄도리는업다。차入 집에서마시는 차가아니라 집에서손수맨든 차를말할수잇스며 손수料理한 도미와 굴파 아이쓰크림을 대접할수잇는것이다。비록 자가용차는업서도 映畵구경만은 不自由롭지안케 동행할수잇는것이다。그러나 이것도 그가 직접 나를찾기전에는 엇저는수업는 것이며 옷가지나 과자상자쯤을 小包로 보내닷자 별반 신통한것이아닐것이요 차라리 그리타면 小說책을 보내이 더 뜻잇는일이아닐까 생각한다

B氏는 小說을 유난히 조화한다. 暖爐전을 싸고안저 놋도록 이야기한것도 말하자면 大部分이 小說이야기와 文學이야기엿다. 廣汎한 그의 小說知識에는 놀날 만한것이잇스며 新聞小說을 等閑히보는나로서 못그리울때가만타. 그대신나는 古典으로 그를이기며 그의知識에 그무엇을 添加하야줄必要가 잇다。

小說책이라고해도 自身의것은 초라하니 훌륭한 內容의 좋은 한책—가령 海外의것이라면 맨스피일드의 短篇集쯤이 적당할듯하다。이와나미版쯤으로는 體裁가너무도 貧弱하니 좀더高價의 豪華版이나 나면 한部 보내리라。B氏의 시골살림에는 요때파우 안을 좋것이며 特히『幸福』가든 傑作은 기어히 추천하고시픈 一篇이다。무릇 그內容보다도 藝術의香氣를 그에게 띄여주고시픈것이다。男便해리와 미스·팰튼 아내 엘파 에띄이 워렌의 두쌍의 微妙한關係를 나는 출겨하지안는다。다만 해리와 엘夫妻의 幸福스런 家庭的輪廓—집물아페선 한포기의배矮한 배꼿으로 象徵되는 안해의 幸福感—그것이 그들에게 들려주고시픈 主題이다。배꼿이라는것이 그리케 아롬다운것임을 사실 나는 이作品에서 처음알엇고 그것이 幸福感의 象徵이 이作品에서가티 如實하게 울려온 적은업섯다。

『……저쪽편 담으로향해 한포기의 맛밋한 배나무가 가지가지에 굿득 꼿을달고 잇섯다。마치 구슬가티 푸른한봄에 고요하고 화려하게 빼치고 잇다 아직 파지 안흔 봉오리가 한개나 잇슬까 시들어버린 송이가 한송이나잇슬까—한창 깨끗하고 호젓하게 활작피여잇는것이 멀니서잇는 버어사에게완연히보여왓다…』

『…그나무는 고요하게 그리나 타는촉불의 불꼿과도 가티 하늘로뻐치고는 아름답게떨니고 잇다。봄풍안에 작고만노파저서 금시에 하늘위 둥근달에 채일듯도하다。』

[illegible] 꼿송이가 [illegible]。[illegible]를 노래한 詩人中에도 배꼿은 一聯도 [illegible] 배꼿은 一層도 희다는 [illegible]作 [illegible]이 배꼿을 [illegible]와 [illegible]가 특별히 [illegible] 생각한다。 [illegible] 暗示가 잇지안흔가 [illegible] 만발하엿슬때의 林檎꼿이라는것도 물론 아롬다웁것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에 林檎꼿의아롬다 옴만이 눈에띄이고 배꼿의美를 [illegible] 무슨까닭이엿든가 의심한다。엇떠튼 나는 배꼿을 맨스피일드의 短篇에서 처음으로 발견한셈이다。하기는 하필 맨스피일드만이 아니다 [illegible] 배꼿을 노래한사람은 [illegible] 그의詩句가 나의배꼿의印象을 도와주엇슬지도사실이다。 [illegible] 밤에 배꼿이 울고 [illegible] 떼면 [illegible] 하늘이 파아란 나니 배나무 그늘이 가슴에 푸른 고 연두색 납새 해벗에 손벋처 고 욱어진 가지마다 쫙퍼진 가지마다 웃슴 또 웃슴……

愛憎道 (三)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
鄭飛石 作 崔根培 畵

깐놈은 엄마의 눈치를살핀다。엄마는 잠자코 잇다。다시 노선달을 처다본다。

『어서 걱정말구 나가 놀아!』 하는 노선달의 손짓에 칭찬리듯 깐놈은문밧그로뛰여나간다。

노선달은 단둘이되자 엽을헤작이 벌려 우스며 홍매를 처다본다。

사실인즉 노선달은 홍매와 단둘이 좀 흥정이 잇섯다。허긴 보아야할 『그일』은 원 투대로 하자면 훗전한 밤이래야 조켓지만 밤엔 육군이 되여들고 되며나는 판세니 체면상—체면뿐 아니라, 개집 에게 앤길홈으로해도 젊은여석들과 겻고를 재주는 업다。그래 낫을 을 타 차저오게고 막상 차저와보니 아주 안성마침이다。눈에 가시든 깐놈도 나갓스니 제법 일이 드러맛나부다。

노선달은 홍매게로 바루 엉기엉기 내려안즈며

『요새두 갑 잘되디그리?』

은근히 뭇는듯가 재법 격경하는 속시다。

『멀요 겨우해 밥이나 굴지안티요』

하고 홍매는 경황업는 대답이다。그날버리 그날먹는 살림에 그새 깐놈녀으로 사흘을 놀고보니 쌀독도 밋티 드러나고 써도 이흘을 배열까 말까다。나달을 꼽아보니 집세 넘날도 눈압헤 매달녓다。병이 고탈픈마련해선 병원에 가되고십기도 하지만 걷 넘두에도 내선 안된다。세간사리 생각에 골몰했다가 문득 고개를드니 노선달이 눈을 갈급하니 떠서 노상 바라보며 히물 웃는다

(이화상이 어찌자구……?)

허나 노선달이라고 맨주먹으로 오진은 아니다。노선달은 [illegible] 죽기지갑에 손을 넛다。[illegible] 다한다。노선달 지갑엔 삼원돈이 드러잇다。그 삼원을 만들기에 노선달은 꼬박이 이틀동안 앙이 배엿다。

아들에게서 담배갑스로 한탐에 삼십전식 타서는 십오전은 보탤지에모거둔다。그때문에 담배는 [illegible]

호화납 가지납과 석거먹지 안으면 안된다。그삼원엔 어린존자의 코무든 동전도 몃닙 석겻다。

그삼원을 노선달은 닭니 궁리는 애당초 아햇다。젊어서 홀애비가 된 노선달은 보기와는 동떠러지게 정력가다。

그정력이 어찌다가 홍매에게 쏠린셈이다。돈을 구해노코도어떠케 게집을 달래야하누 꽉삼원을 다 줘야될까 삼원을 줘두 살라면?…노선달은 밤낫사흘동안 꼬박이 궁리 햇다。참으로 고달픈 사흘이엇다。

노선달은 또 지갑속에서 삼원을 주물러본다。

(이화쯤 줘두 되잔을까?…)

돈 삼원은 그수부지다。일원쯤 남기면…하니 째야할곳이콩나물 대가리처럼고물고물하다。

(제상! 다줘라! 다줘!)

노선달은 궁으려섬을하고나서

『이거 조롬되지만 바더두시! 허허허』

네절로 접어 잡잿은 지전을바른손으로 쑥 내밀며 왼손을 홍매어게우에 얹는다。

(이 화상이 누줄?…)

홍매는 매시껍이 난다。암만해도 재수가업슬것가다。허나『돈!』하고 홍매는 침을 삼킨다。집세 낼 날이 또려시 떠오른다。깐놈의 양복 사줄생각도난다。

『어서 바더! 적다구 그러나?』

하고 노선달은 재손으로 삼원을 페처뵈다。

『삼원!』하고 홍매는 내살 놀라다。페처보니 노선달도 새삼스럽게 아까웟다。

허나 쇠뿔은 [illegible] 홍매는 못견대는체 바더들엇다。

(가마라고 시침가긴 애진에 굴는바에야……)

노선달은 노상 만족햇다。원체 새빨안 낫쫘이 아주 익어버린듯이 흥분된 순간에 목이 벌겅케 열엇다。

千秋에垂名한 乙相墓參詣
黃義敦

鄕土文化를차저서 (36) 第二班 義州篇

乙相墓

最後의 目的地인 乙相墓에 參拜할 豫定이엇던 十一日은 暴雨의 襲來로 旅舍에 幽閉되야 虛送하고 翌十二日早朝에 趣程키로 登山準備를 다하얏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故國川王十三年(西紀一九一年)條에

『(上略)晏留言於王曰(中略)西鴨綠谷左勿村乙巴素者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性質剛毅智慮淵深不見用於世力田自給大王若欲理國非此人則不可王遣使以卑辭重禮聘之(中略)除爲國相令知政事(中略)乃以至誠奉國明政敎愼賞罰人民以安內外無事』

라하엿고 山上王七年(西紀二〇三年)條

『秋八月國相乙巴素卒國人哭之慟』

이라함으로보면 記錄이 아무리 簡單할지라도 그의出處가 얼마나 正正堂堂하엿스며 그功績이 얼마나 偉大하엿슴을 알만하다

十三年의 短時日間에 相位에잇섯슴지라도 七百年間 東亞에서 號令하든 高句麗의 富强的基礎는 이때에잡혓다할만하다

朝鮮史上에 나타난 偉人中에서 革命的政治家는 淵蓋蘇文을 먼저 드를는지도모르나 平和的政治家로는오직 乙相에게 首指를 굽지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는 中國의 偉人 諸葛亮과 約同時로서 그의出處의 近似한點이 만하도 또한興味가 잇는일이다 諸葛亮은 南陽에 한農夫로서

『先帝不以臣卑鄙三顧臣於草廬由是感激遂許先帝以驅馳』

라함과가티 劉昭烈의 知遇에 感激하야

『不求聞達於諸侯苟全性命於亂世』

하라던 素志를 飜然하고나와 漢室의 興復을 爲하야

『鞠躬盡瘁死而後乃已』

하얏섯고 乙巴素는 左勿村에 한山野으로서

『不逢時則隱逢時則仕士之常也今上待我以厚意其可復念舊隱乎』

이와가티 故國川王의 知遇에 感激하야

『窮用聰明竭盡草澤』

하던 本意를 飜然改略하고 國相에 就任하자 祖國의富强을爲하야

『至誠奉國[illegible]』

케 되얏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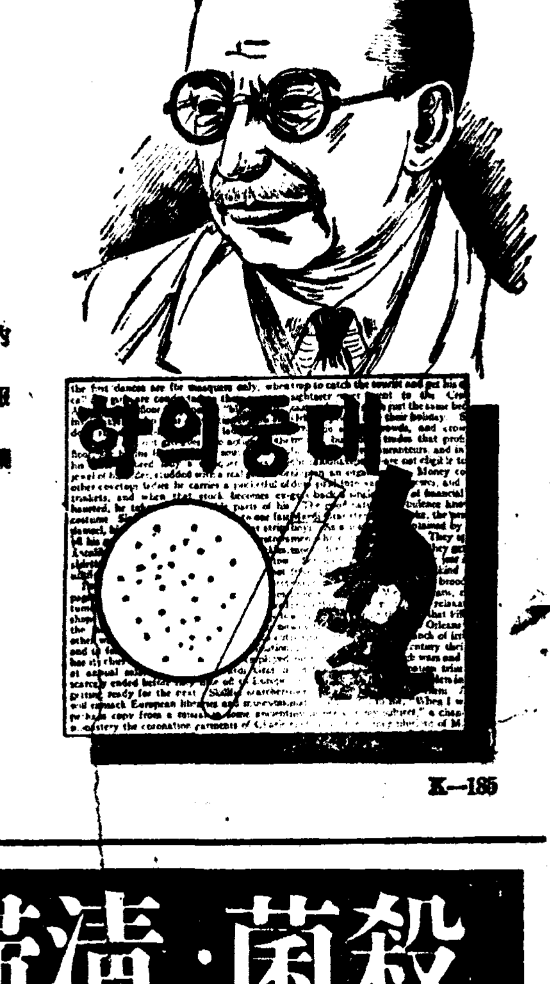
이리듯 東西兩國에 二大偉人이 同時에나서 環境이그러하고 人格이 類似하여出處가 비슷하여 참으로 救味스러운일이다

만은 諸葛亮은 傾覆하는漢室을 부잡으려다가 뜻을일우지못하고 中途에 죽엇고 乙巴素는 新興의祖國을 도아 富强의 基礎를 完成하얏스니 成功과失敗의 두點이 서로달은바로서 同時에 乙相의 더욱 偉大한點이이에 잇다할만하도다

乙相의 卒後에 그恩澤에感激하야 國人이 『哭之慟』하엿슴은 그만두고 지금 義州人士의 景仰과 正[illegible]義州人士의 崇拜하는熱은 普通사람의 景仰以上으로 崇敬點에 가까웟하다

(사진은 乙相墓)

어째 림질은 먹는약(內服藥)으로 낫지안는가



K—185

그동안 수만흔 먹는 림질약이생겻스나 어째서 근치가못되고 늘 재발되엇든가! 그리유는 간단하다 즉 림질의 병화근이 어느곳이것을 찾자케서 모든신때문에 그러약을 복용하신다할니다 왜 그러나하면 림질의병화근은 남여국부의 뇨도조직속에 림균이잇는까닭에 발병된것인데 이곳을 꼿치시라고 약을먹어서 위장을경유하야 얼마간의 약기운이오줌에 석겨 지나는사이에 나으리라고 밋는때문에 그럿케 낫지안는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환부에 넛는약(局所療法藥)이면 다 조흐냐하면 이역시 그럿지안습니다 사람들은 살어잇기때문에 재래의 약처롤 한가지의 성능(性能)으로는 그조직과 병균이 변화케되므로 밧듯이 그변화에맛도록 二重으로 치료를하여야만 근치됩니다

어정에서 『부란오銀겐고ー루』의 二重殺菌료법이라야만 림질이 근치된다는것이 명화케되오니 속히 本劑로 근치식힙시다。

병화근인국부에직접 치료하면림질은곳낫는다

여러분께서는 림질을 그리 대소럽게생각지안으시나 림질처럼 무서운병은 업습니다 죽 속히곤게되고 끈허업는 고통으로써 사람이 生氣와 화색이업서지고 드듸여 부인께서는 무서운 림독성 부인병을 알케되어 아해까지 못나케만들어주니 그어찌 치료를 등한히 하실수잇겟슴니까

그러면 림질에걸리면 그병화근이 어데인고하니 아시는바와가티 남녀국부이온데 병균은 어느곳에서 어떠케活動하고잇는냐하면 남자면 국부의뇨도속에는 해면체(海綿體)라는 적은 주머니가 모혀잇는데 그사이를뇨도측판(尿道側管)이라는 가는판이 싸고잇는데 이속에 림균이 파무처서 여러가지의 고장을 이르키고잇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뇨도표면에잇는 병균을 죽여도 이속에 파뭇친것을 죽이기전에는 림질은절대로 根治가 되지못하고 늘 再發케됩니다 그러까닭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써오시든 治淋內服藥으로는 根治가 못되는 원인이 여기에 잇섯스니 즉 胃腸을 것처서 약간의의기운이 오줌에섯겨서 환부에 작용케되는 內服藥의 약효로는 죽기에는 너무도 [illegible] 큰 결인때문입니다

더구나 림균이 시험관(試驗管)속에 죽을만한 强한약을넛는다면 배속의 장기가녹게되는때문에 하는수업시 [illegible]을뉘처서 넘새나 나게하고 보통환자가 눈으로 안심이나 시키는데 지나지못한것이엿기때문에 최근 世界醫學界에서는 림질치료에 반듯이强力한 銀劑로 직접환부에 치료하여서 根治시키는료법이 共通인되고잇는바입니다

그러나 즉접 치료약일지라도 처음에는여러가지 폐단이만엇섯든 것입니다 즉 만흔分量을 너어야되므로 익숙한 의사가아니면 치료를 할수업든가 殺菌力이만흐나 속기괴로우니 병균을 죽이지못한다든가 가루약을 애(?)도속에 넷케하면 꼬창이처럼 만들어가지고 [illegible]

世界의권위잇는 醫學者들은 고심연구를 거듭한결과 우리 東洋에서 약한방울로 완전한 효과를 엇게되는 百發百中의 根治藥 『부란오銀겐고ー루』가 世界的으로大發明되엿습니다 더구나 『부란오銀겐고ー루』는 재래의 림질약에서 볼수업든 二重殺菌療法이 강구되어잇스므로 병화근을 꽉꽉 집어내듯이 꼿처주어서 短時日안에 근치시켜주는약입니다 또한 의사전문약일뿐만아니라 일반자택치료 환자에게서도 안심하고 손쉽게치료되는약이므로 더욱 유효합니다

二重殺菌을 해야만림질은 根治됩니다

약 한방울로 단 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의사전문의 림질근치약 『부란오銀겐고ー루』는 직접 병화근에 작용하며 약기운은 몸전신에 퍼저서 모든종세를 다스려주나니 더구나 本劑는 사타잇는 몸조직과 병세의 변화를 고려하야 二重殺菌을 하는약인만큼 재래의치림제의 單一性能에비하야 더욱 특효를 가진약이오니 하로바삐 근처 有名한藥店에서나 여러분은 병고에서 버서나실[illegible] 조선 국문으로 변세를 자서히쓰시고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

으로 주문하시면 本報에독자에 한하야 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하해드립니다

—[illegible]…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입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림질을속히根治하실여러분!

오줌누기에고통이심한분
再發되야한탄하시는분
內服藥을장복해도낫지안는분
부부화합에자미를모르는분
부인병으로고통밧는분

百發百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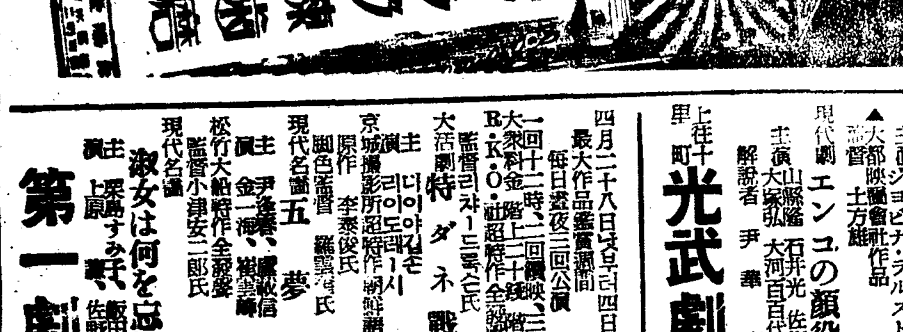
림질이 근치되는 『부란오銀겐고ー루』로 二重殺菌하시면 무슨약보다도 短時日안에 근치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자택에서도 아무염녀업시 간편이 병원치료와 독가튼 효력을 엇게되오니 급성중인분이나 만성중인 분이나·本劑의 一號와 二號를 계속하여서 치료하여주시며 부인게서는 三號를써서 부부협력하시와 두분이가티 치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殺菌·清掃力の強い薬用歯磨

專賣特許

薬用 クラブ歯磨 (구 라 부)



虫歯를막는 薬用効果

歯磨의選定은特히注意하지안흐면안됩니다그點、가장信賴할만한科學的歯磨는薬用クラブ歯磨입니다 웨그러냐하면專賣特許의殺菌劑 구로ー루·갈바구로ー루及요ー도치모ー루의配合으로口中의黴菌을死滅清掃시켜서虫歯와口臭를防止하고이를히고아롬답게합니다게다가何等의副作用이업고 맛과香氣는아주爽快한故로クラブ歯磨를쓰면 虫歯를防止하고健康한 아름다운이가됩니다

[illegible]·二三전 一八전 二八전 三五전 五五전
中……………十八전

桃花劇場 電話 [illegible]

◇四月二十八日早터向三日間 (昭和名畫大公開)
每日晝夜二回晝一時夜七時十五分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松竹社特作全發聲版 愛ノ法則 監督 清水宏氏 主演 近衛敏明 三宅邦子 桑野通子
◇FOX社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活劇 曲馬團殺人事件
◇伊太利ローマ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主演 ハインリッヒ・ゲオルゲ(?) 監督 ハイナーオラント(?)
戰爭活劇 リビヤ白騎隊 監督 アウグストヂェニナ氏 主演 フルヴイアランシ アントニオチエンタ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四月二十八日早터向三日間
◇二十日祭日晝夜三回正午一六時
普通日二回晝一時夜七時十五分
◇全勝キネマ作全發聲 浪曲トーキ 堀部安兵衛 監督 熊谷草雄氏 主演 大内弘氏 [illegible]
◇東寶映畫社特作全發聲版 最高記錄映畫 軍艦旗に榮光あれ 指導 松島中佐山口少佐
◇ユニヴァサ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1936年レビユー劇 ショウボート 主演 [illegible]

黃金座 日活

パ社京日ニュース 12·25 3·25 7·00
RKO·特作 泰西俠盜傳 12·35 3·35 7·20
朝日ニュース 1·50 4·50 8·40
パ社特作 青春ホテル 11·00 2·00 5·50 9·00
午前中入場者[illegible]
四月二十五日ヨリ 四月二十八日マデ

光武劇場 往十里町

四月二十日晝間早터三日間
大衆料金十錢均一
晝…一時 夜…七時三十分始映
◆大都映畫超特作股旅映畫 時代劇 全發聲 源太郎笠 江戸みやげ 主演 松山宗三郎 久野あかね 東龍子
◆米國テイフアニースタール社作 監督 レヂナルドバーカ氏 主演 フェイバンタスヂュニア氏 ジョビナラルスト嬢 大活劇 坑
◆大都映畫社作品 監督 土方鐵 主演 山縣[illegible] 石井光 佐海直人 大河百百代 現代劇 エンコの顔役 解說者 尹華 李丙吳

第一劇場

四月二十八日夜早터四日間大公開 最大作品鑑賞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三時、三回七時半
大衆料金 階上二十錢階下十錢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活劇 特ダネ戰線 主演 리차ー드·딕스氏
京城撮影所超特作朝鮮語全發聲 原作 李泰俊氏 監督 羅雲奎氏 現代名篇 五夢女 主演 尹逢春、盧載信、金一海、崔雲峰
松竹大船特作全發聲 監督 小津安二郎氏 現代名篇 淑女は何を忘れたか 主演 栗島すみ子、飯田蝶子 上原謙、佐野周二

産業

本社主催 朝鮮特産品展覽會 特産商品案內 ⑪

罐詰製品

▲生産高
製造戶數 五四戶
生産金額 二、三三九、九五一圓
▲出廻期＝自二月至十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 內地 米國 南洋諸島 滿洲
▲取引方法＝見本取引으로서代金은 現物과引替하야 七割가량의現金 支拂하는가 荷物着付送付를 習慣으로하는데 殘金은一個月乃至二個月後拂으로한다 水産品外의罐詰은 現金賣又는手形取引으로한다
▲製造方法＝『도마도사ー진』鰯의頭部及內臟을 除去하고 洗水로시처서 乾燥器에너허 半乾을行하고 罐油로써서 罐에너허『도마도』液을 注入하야 殺菌한다
蟹罐詰―原料蟹를充分히쪄서脚肉, 胴肉을取하야 洗滌해서罐에너허 脫氣殺菌하야 冷却시킨다
水産品以外의罐詰 原料를精撰水煮를行하야 調味料를加해서 一定時間煮해내닛는다
▲原料種類同産地＝蟹는『毛蟹』로서 主로咸南北 江原道 慶北沿岸이다 鰯은江原 慶北沿岸이다

蒲鉾

▲生産高
生産金額 三六四、六五七圓
▲出廻期＝自十月至翌年四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滿洲方面
▲取引方法＝現金取引又는三十五日乃至四十五日의手形에依한다
▲製造方法＝生雌魚를 採取後에 거리서 骨皮와肉파를 分離시켜 分離시킨肉을 粉碎하야加味付한後 水蒸氣에依하야因것이다
▲原料의種類同産地＝朝鮮産魚

清涼飲料水

▲生産高
製造戶數 二三戶
生産金額 七七九、五〇八圓
▲出廻期＝自三月至九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
▲取引方法＝現金取引又는二個月乃至三個月의 手形에依한다
▲製造方法＝天然炭酸水 天然湧出의炭酸瓦斯及泉을 適當하게混合製造한다
習通사이다―類 砂糖水에 시롭푸, 香料等으로 適當하게混合하야 壓搾機로 炭酸瓦斯를너허製造한다
▲原料의種類同産地＝砂糖、香料枸櫞酸、人工炭酸瓦斯等 朝鮮産品及內地産品을主로使用한다

製粉

▲生産高
製造戶數 一四戶
生産金額 六、九〇六、七〇八圓
▲出廻期＝渡年
▲主要販路＝朝鮮內各地及滿洲
▲取引方法＝實物에對하야는代金引換으로하나 荷物着付로하는것도잇다
▲製造方法＝原料穀物을精撰洗淨하야 [illegible]
▲原料의種類同産地＝米、麥、麥은朝鮮産을使用하나 麥은米國、加奈陀産을使用하는수도잇다

砂糖及菓子

▲生産高
製造戶數 七一、四七八戶
生産金額 一六、九九〇、九九五圓
▲出廻期＝渡年
▲主要販路＝現物에對하야는現金取引을主로하나 一個月乃至二個月의 延取引을하는일도잇다
▲製造方法＝習慣에依하야 方法도各各다르다
▲原料의種類同産地＝砂糖、米、牛乳、牛酪、麥、鷄卵等을 主로朝鮮産을使用한다

麵類

▲生産高
製造戶數 一〇五、七三七戶
生産數量 一五、一九七、五二九斤
生産金額 三、二四八、五一四圓
▲出廻期＝自四月至十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
▲取引方法＝現物에對하야 現金取引을主로하나 六十日乃至九十日의延取引을主로하는일도잇다
▲製造方法＝麥粉을食鹽水로 개서 製麵機에거려 充分히乾燥케하야 適當한길이로 切斷한다
支那素麵―綠豆를물에서 濾過하야 片栗粉을 混合한後 煎滯加工한다
▲原料의種類同産地＝麥粉綠豆朝鮮産

出品目錄一覽 ②

京畿道

物品	産地	出品者氏名
바가지줄	京城	植杉貴之助
바가지蒸菓人	同	同
바가지石鹼	同	同
크림	同	金井商店
포마ー드	同	同
水白粉	同	同
化粧水	同	同
香油	同	同
[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同
水크림	同	同
아스트린젠	同	同
懷中菓子	同	金鵄甲
[illegible]	同	同
羊羹	同	同
松之實飴	同	京城菓子株式會社
人蔘드롭	同	同
久留米飴	同	同
松實카라멜	同	同
林檎飴	同	同
三好크림	同	三好化粧品株式會社
三好水白粉	同	同
三好化粧水	同	同
三好포마ー드	同	同
三好固白粉	同	同
三好練白粉	同	同
三好香油	同	同
三好香水	同	同
三好[illegible]	同	同
고리아石鹼	同	同
[illegible]石鹼	同	同
三一石鹼	同	同
東洋[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文化手藝商會
文化刺繡	同	同
[illegible]	同	同
花[illegible]	同	同
白紋油	同	山岸[illegible]
平라이油	同	同
[illegible]水改良油	龍仁	吳[illegible]
大豆	長湍	長湍郡農會
豆[illegible]	仁川	大津勇次郞
[illegible]寸	同	朝鮮[illegible]寸會社
코리안크로스	開城	金正浩
高麗人蔘	開城	開城蔘業株式會社
尾蔘	同	同
一等細尾	同	同
香尾人蔘	同	同
花蓆	江華	江華産業組合
花甁敷	同	同
香[illegible]	楊平	金昌烈
참기름	開城	東亞製油所
長靴	京城	
地下足袋	同	中央商工株式會社
大스립퍼	同	同
白女靴	同	同
運動靴	同	同
[illegible]	城州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다이아몬드잉크	同	金[illegible]
萬年筆잉크	同	同
土壁잉크	同	同
스탬프잉크	同	同
가이드잉크(青赤)	同	同
[illegible]잉크	同	[illegible]
스탬프잉크(黑赤)	同	同
[illegible]	同	同
[illegible]手	同	[illegible]
朝鮮[illegible]	同	
[illegible]	同	西大門刑務所
[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同
文[illegible]	同	同
花[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文[illegible]
[illegible]煉炭二穴	同	朝鮮煉炭株式會社
同 三穴	同	同
마세크煉炭	同	同
[illegible]煉炭	同	同
苦草醬	同	朝鮮[illegible]所
魚[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同
胡桃醬付	同	同
풋고초장앗지	同	同
[illegible]	同	同
金[illegible]付	同	同
[illegible]甲龍醬油	仁川	野田醬油株式會社朝鮮出張所
호마레味噌	京城	同
[illegible]甲萬醬油	同	同
地紙龍醬油	同	同
紀茶碗	同	同
메리셋트	同	同
丸란지皿	同	同
小判란지皿	同	同
루리色丸란지皿	同	同
白地肉皿	同	同
고ー히茶碗	同	同
朝鮮衣服동정	同	崔百根
眞珠板製婦人用벤도	同	同
水年가[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朴英[illegible]
大門[illegible]	同	同
에신[illegible]	同	朝鮮[illegible]株式會社
[illegible]바라ー멘	同	同
[illegible]水	同	同
[illegible]合元	同	同
[illegible]合元	同	同
百補丸	同	平和堂株式會社
婦人[illegible]丸	同	同
[illegible]丸	同	同
[illegible]水	同	南泰熙
朝鮮[illegible]	楊平	柳根昌
同	同	安秉斗
同	同	同
合成[illegible]	定京城	林範植
同 民[illegible]	同	同
同 [illegible]	同	同
同 婦女子用	同	同
合成[illegible]小兒用[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同
버게모大人用	同	同
同 小兒用	同	同
木枕	同	同
구리무	同	아스타ー化粧料本舖金澤商店
포마ー도	同	同
水白粉	同	同
化粧水	同	同
香油	同	同
香水	同	同
베ー람	同	同
粉白粉水白粉水		
乳液美容水	同	同
水구리무아스트린젠	同	
萬力[illegible]	同	同
金千代	萬力産業合資會社工業部	同
銀千代	同	同
朝鮮菊正宗	齊藤酒造合名會社	同
마라손王카라멜	同	本嘉納商店京城支店
		同
		豊國製菓株式會社

稻熱病驅除에 積極對策講究
今年度에는基礎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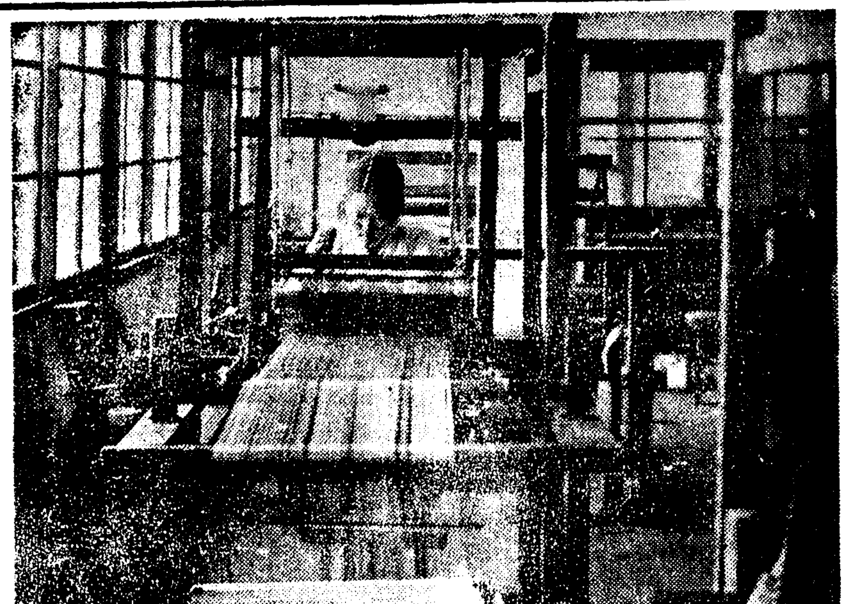
高度하게 進步된 日本內地農業에서도 年年의 病虫被害는 놀낼만치 多額에 達하야 稻熱病만으로도 每年의 被害面積三十萬町步나되고 그被害金額一二三百萬圓을 不下함으로 農林省에서는 十三年度부터 積極的으로 病虫害 特히 稻熱病의 撲滅에 邁進케되엿는데 朝鮮에서는 十三年에는 基礎的調査를 行하고 十四年度부터 具體的積極策을 樹立키로되엿다 朝鮮에서는 病虫害그自體의 研究는 栽培研究에 따라 各農事試驗場에서 行하고잇스므로 相當히 成績을 올리고잇스나 이를應用한 驅除豫防의 施設에對하야는 現在로서는 거의볼것이업고 被害高까지도明白치안흔데 相當히 進步된日本에서도 莫大한 額에 達하는것을 보더라도 朝鮮도數百萬圓에 達하리라 推測되여 그 對策確立은 半島農業對策의 重要項目으로 되여잇스므로 그中 果樹에 對하야는 果樹病虫害研究會를 組織하고 研究施設을進行하기로 되엿다는데 다시稻其他에 對하야도 積極的對策을 講究하려고한다

棉花播種奬勵로 四百餘名을動員

【安城】京畿道安城郡農會에서는 數年前부터 棉花耕作을奬勵하야 相當한 成績을내여왓는바 今年에는 徹底的으로 指導奬勵하기爲하야 播種督勵로 郡、面職員은 勿論이오 學校職員과 各里區長、各振興會長까지 合하야四百餘名의 總動員으로 二千五百町步를 目標指導中이라한다

「미역」賣買를 共販으로決定

【咸南支社發】遂湖漁業組合에서는 管內에서生産되는 年二萬圓에達하는 和布가모다 婦人들손으로 任意대로賣買되야 그價格維持에 大打擊임으로 어번이것을모다 共同販賣에附키로計劃하고잇다 어러하야指定仲介人의制度를 만들고서 價格과 品質의 向上을 圖謀키로되얏다고한다



絹織으로有名한 平南의德川亢羅
本社特産展에도出品

【德川】本社主催의 朝鮮特産品展覽會는 半島産業界 初有의一大劃期的事業으로 그 意義더욱 깁고 効果또한 적지안흘것으로 期待되는데 今般 德川産業組合에서도 平南特産『德川亢羅』를 特選出品하야 展覽會場에 한異彩를 보히리라고한다 『德川亢羅』는 自古以來로 그名聲이 高함뿐만아니라 轉近數年來 改善向上에 努力한結果 品質良好하고 그比類를 볼수업는것으로 그需要者는 年年增加하야 全朝鮮各地는勿論 東京 大阪 南北滿洲를비롯하야 海外에서까지 注文이殺到케되여『德川亢羅』는 單只 平南의特産品일뿐만아니라 朝鮮絹織物中에도 獨特한 存在로 朝鮮生産品의 자랑인것이 또한事實이다 그러데 요사이 他地方 商人이『德川亢羅』를 買去하여다가 他地方商號를 부치여 市場에보내는일도잇고 또한 類似品製織者가 出現하야『德川亢羅』도안인것을『德川亢羅』로 販賣케되여『德川亢羅』의 聲價를 損傷케하는것이므로 當局에서도 그對策을 講究中이라고한다 德川産業組合에서는 그方策으로 規格統一을 目標로 改良改善을 積極奬勵하고 各部落에는組合細胞團體로 機業契를 組織하야 技術者를 養成하고동시에集團部落에 簡易共同作業場과 共同精練場을 設置하야 能率增進과 生産方法의 改善發達을 圖코저하야 織物王都로써 新規工作의 第一段에 오르게된것은『德川亢羅』愛用家에게 快消息이요『德川亢羅』生産者의게는 一大福音인것이라고한다。(寫眞은『德川亢羅』織造光景)

燒損木을利用해 五千噸을增産
足立鮮製紙副社長 談

株主總會에 出席코저 二十六日 入城한 北鮮製紙化學工業副社長 足立正氏는 左와如히말하엿다

吉州工場은 今回燒損木을 利用하야 팔프五千噸增産을 行하기로되여 이미 總督府의許可를어더 王子製紙로부터 一釜를 讓受하야 今年中에完成할豫定이다 其外 다시增産計劃도잇서 目下調査中이다

◇

最近팔프價引下說이 盛히唱傳되고잇는模樣이나 實際는日本品은 外國品보다도 低廉이므로 一部의 策動에 依한것일것이다 商工省으로서는 무슨對策을 가지고 잇는듯하나 只今으로서는 잘알수업다 다만팔프의 配給을 統制하려는意向만은 가지고잇는듯하다

◇

王子製紙는 目下山陽팔프東北팔프及 敦化팔프等 增産計劃을 實行中이다 國策팔프會社의 計劃도 着着進行되고잇는듯한데 資金技術的으로 아직相當히 問題가 잇는듯하다 同社의 計劃은 昭和十五年에 十二萬噸 昭和十六年 十七年에各其 二萬噸을 增産하야結局十六萬噸의生産을豫定이다

◇

紙의節約이란 問題도事變下에잇서政府를비롯하야 努力中인데結局吾等의見解로는 普通의印刷紙는 어느程度消費의增加를 阻止할수잇슬것이다 新聞紙包裝紙등 節約함은 相當히어려울것이 아닌가생각된다 그러고同氏는 三十日發 吉州工場을 視察하고 來月二、三日頃 歸京하엿다가歸東할豫定이다

慶北春蠶掃立
―十二萬五千枚豫想―
比前年三千枚增

【慶北支社發】慶北道內 今年度春蠶掃立은 比較的日氣가 順調로와 前年度보다 二、三日일즉 오는 五月五日頃에는 給作될것으로 豫測되는바 掃立豫想枚數는 十二萬五千枚 約八十萬貫으로 前年同期比三千枚、五萬貫의增收가 될것이라고한다

新義州第二産組總會

【新義州】新義州第二産業組合의 第四回定期總會는 二十一日午後三時부터 府內國境會館에서 開催하야 左記議案을附議한後 組合長 理事改選에들어가 모다留任하기로되엿다

一、昭和十二年度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剩餘金處分案及監事意見書承認의件
二、役員手當支給의件
三、組合長選任의件
四、理事選任의件

叺十八萬枚記念코 長湍叺織競技會開催

【長湍】長湍郡農會에서 農村副業奬勵의 重要科目으로 昨年度에 叺四十萬枚增産을目標로 積極的奬勵한結果 三月末日 現在十八萬枚를 出荷突破하얏스므로 一層生業報國의 强化와 完璧을 期하고저 去十七日 午前九時半부터 長湍東鄕常小學校校庭에서 叺十八萬枚出荷突破記念의 叺織競技會를 盛大히 開催하얏다

明太、明卵加工해
北支、滿洲等外地로輸出計畫
貯藏力增進과、價格調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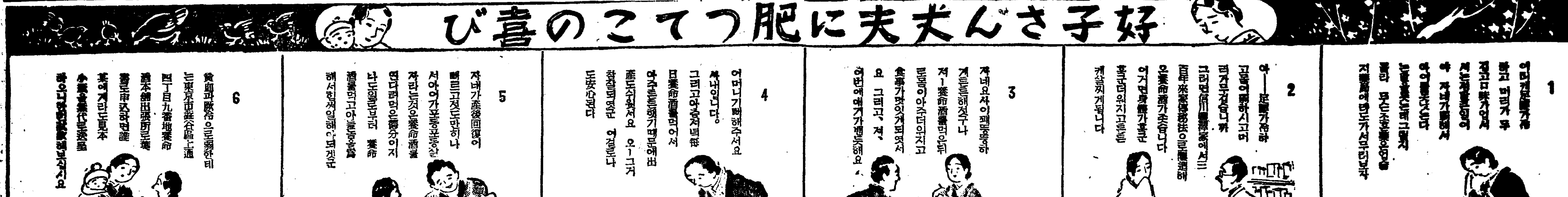
【咸南支社發】咸南道에서는 明太魚加工利用에對하야 鋭意研究中에잇는바 이結果로는 [illegible] 明太와 明太卵을 製造하야 [illegible] 必要한것이라 [illegible] 北支와 [illegible] 計畫이다 [illegible] 日本 [illegible]

第四回 産業視察團員募集

本社가本社四大綱領의 하나인産業發展의標語 미테年年産業視察團을 募集、派遣하야 多大한成果를 어든것은 讀者諸氏의 周知하는 事實이어니와 今年에는 이年中行事의 視察地로滿洲及北支를 擇하얏다。滿洲及北支는 말할것도업시 新興産業地帶로 彼我의物貨를 有無相通할處地에잇스며 彼處의大規模産業을 此處에龜鑑으로 삼을것이만타。曠漠한滿洲平野에서 産出하는各種農産物、北支에서 發掘되는石炭、鐵等諸鑛産物、이것들을 精製、加工하야食料、軍需品化하는 製造及重工業、모두 吾人의參考안될것이업다。特히 滿洲及北支는 朝鮮과 隣接한 地帶로 歷史上、文化上深大한關係에잇고 今後도一層近接할形勢에잇다。本社가 滿洲及北支視察團을 募集함도 이所以이다。諸氏의 發奮參加를바라는바이다。

團員 二十五人
期間 五月六日京城出發同二十二日歸京(十七日十六泊)
視察地 圖們、牧丹江、哈爾濱、新京、吉林、奉天、撫順、北京、張家口、天津
旅費 二百八十圓(汽車二等、夜間寢臺、旅館一流)
資格 實業家(年齡二十五歲以上五十歲以下)
起點 京城으로함
參加手續 參加手續은 四月末日까지 金百圓을添附하야 本社事業部로 手續하되 [illegible]

主催 朝鮮日報社



살결의障害를
解消해서‥‥・

明朗한若肌

따뜻한봄의숨결에、내세상인드시、부르텅기는여드름・부릇틈、얼마나 괴롭게합니까…… 그러나 安心하십시요 レートクレーム가 곱게 解消시켜줍니다!
レートクレーム는近代化學이나흔國産最高의整肌料인故로、봄철에생기는살결의障害를、新陳代謝作用으로조롱하게解消할뿐이아니고잔주름가튼것도一掃해서潑剌新鮮、戰時의女性에게어울리는健康美넘치는若肌를만듭니다!

ニキビ・吹出物の心配御無用

健康美넘치는몸단장에

レートクレーム
레ー트크레ー무

會社側의提案一蹴 最後交涉도決裂
住民側은移轉費廿萬圓要求
馬洞煤煙問題後聞

【沙里院】 작년가을부터 경의선 마동역전(京義線馬洞驛前)에잇는 천야(淺野)세멘트회사에서 시운전실시이래 공장연돌에서 내여뿜는매연(煤煙)으로 말미아마 백여정보농작물의 전멸은 말할것도업고 회사근방에잇는 토성면무정리(土城面武井里)를비롯한 사백사십호에인구 일천팔백여명이 공장에서 뿜는 연기로 호흡까지 할수업서 보다못한주민들이 공장에 방연장치를요구하여왓스나 공장측에서 만족한대답이업서 분개한주민들은 수차공장에 달려가기도하엿고 대표자로 하여금 군경당국에 진정을하는등 쌍방의공기는 점점험악하여진다함은 기보도하엿거니와 그후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봉산군청과 경찰서에서 협력하여 회사측과 주민간에서 원만한 조정에 힘쓰던중 이십칠일오전 열한시에 봉산군청군수실에서 군경당국자입석하에 회사의 최후결정을 곽병국(郭炳國)씨외칠명 주민대표에게 전하엿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거니와 주민대표일동은 극도의불만을표시하며 교섭은 결렬되고 말엇는데 금후의진전은 더욱주목을 끌고잇다

▲會社側決定案

一、방연장치는 금년말까지 완비시킬것

二、석탄재(黑煙)방비기는 금년유월까지 완성하도록할것

三、방연장치가 완성되는때까지 만이년간은 연오천원씩 주민일동에게 위안금으로 지출할것

이에대하야 주민측요구는 부락이 이전하여야 할터이니 이전비로이십만원을 내라고 강경히주장하고잇다

圓滿解決을希望 鳳山郡守談

우리군과 경찰당국에서는 수차공장을 실지로시찰하고 아울러 평양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외 선진각공장에잇는 방연장치를 참고로하여가며 타협조정에 힘썻는데 오늘 회사측의 최후결정안이 도착되엿는데 여러분은 여기대하여 유감됨이업시 원만히 해결을 지여주엇스면합니다

住民代表鄭氏談

그동안 특별히 협력하여주시는 군경당국에대하여는 이천주민대표로서 기피감사를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주민일동은 절대로 회사측결정안에 만족할수가업습니다 본래우리들의요구는 공장에 방연장치를 하여달라는것인바 방연장치완성까지는 적어도 이년간의시일이 필요하다니 그러면그동안에 임시이전비로 매호오백원씩만 요구하는것이지 위안금(慰安金)으로 한명에 년이원씩이나받고 엇지사람이 그곳에서 희생할수잇습니까 저이는 절대로 그안에 찬성할수업습니다 군경당국에서도 이이상해결이되지안흐면 일체조정을 단념하고말 의사를갓고잇는모양이다

大田商議所主催 北支視察團

【大田】 누보한바와가티 대전상공회의소(大田商工會議所)주최로 북지시찰단은 신청원이되엿스므로 예정과가티 오는오월이일 오후한시차로 대전역을 출발하야 시찰길에 오를예정이라고한다

大邱西部小學校 五月三日落成式

【慶北支社發】 전대구여자보통학교(大邱女子普校)는 거년에 부외 비산동(飛山洞)으로 이전된 관계로교명을 서부소학교(西部小學校)로 변경하고 그후 교사의건축공사를착착진행하여왓든바 그공사가 준공되엿스므로 오월삼일에 낙성식(落成式)을 성대히 거행하리라고한다

京南鐵道事故 投石轢死兩件

【大川】 지난이십사일오전구시십분에 장항(長項)을 떠나서천안(天安)으로 향하는 경남철도 [illegible]

迎日郡下에火災 少女一名이燒死

【浦項】 사월이십육일오후아홉시이십분 경북영일군죽산면죽도동(慶北迎日郡竹山面竹島洞)소재 포항음료향동이구헌(李圭憲)의 소유인 정어리공장내 온돌부엌에서 불이나서 공장도구(道具)와 재공품을 소실하고 동세시에진화되엿는데 손해액은 일천여원에달하고 공장의감시인 김동호(金東浩)의 어녀귀이(貴伊)가 방에서 자다가 불행히 소사되엿다한다

全朝鮮武德大會 忠南選手出發

【大田】 오는오월일일부터 무덕제(武德祭)에 참가할 충남도경찰부(忠南道警察部) 대표선수(代表選手)일행은 이십칠일 오전십시사십분차로 출발하게되엿다고한다

高敞産組定總

【高敞】 고창산업조합에서는 지난 이십오일 오후두시에 정기총회를 개최코 수개조의 회의를 진행하엿스며 역원개선에들어서 조합장은 주민유력자 박용(朴龍)씨 리사도 홍순희(洪淳熙)씨를 선거하엿다한다

高敞서物價對策 懇談會開催

【高敞】 지난이십일일오후두시에고창군수실(高敞郡守室)에서 각관공서(各官公署)직원을회집하야 비상시국의 물가앙등하는차제에 저축장려소비절약에대한 여러가지토의와 가구(家具)중에서도 제일고철(古鐵)고면포(古綿布)폐지(廢紙)불용품(不用品)을 이용에대하야 철저히 실천실행키로 장시간 간담을하엿다

두女子를主犯으로 金塊密輸타發覺
定州署의取調도一段落짓고 一團九名마침내送局

【新義州】 평양부하수구리(平壤府下水口里)일백사십일번지 장내원(張迺源)여자와 동죽전리(竹田里)십육번지 림용갑(林用甲)여자둘은주범으로 지난수일 경성(京城)김재중(金在重)평양(平壤)정운도(鄭雲道)로부터 장인금괴 일백사십『몸메』시가일천구백원과 일백『몸메』시가삼천원을구매한후 평양발안동행자동차로 안동(安東)에 밀수하야 만주인상점에 팔어 대금오천사백원을 엇지고무 신구두에 감추어가지고 그집으로도라가든도중 평북경찰부이동반에게 발각되어 그간정주서에서 취조를받든바 지난이십오일 정주검사국지청에 관계자구명을 모다송국하엿다

▲援護 金瑞泳 徐達三 尹鳳鉉 全應坤 ▲藏匿 金龜錫 高寶輔 少年軍 少年保國隊員一同

"五千圓을내여라 不然이면一家族을沒殺"
价川雲興里地主에게脅迫狀

【平南支社發】 개천군조양면운흥리(价川郡朝陽面雲興里)지주 [illegible]씨에게 금오천원을 준비하여두라는 편지가 왓는데 만일 그돈을 준비하지안흐면 일가족을 몰살하겟다는 [illegible] 개천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忠南道郡守會議 五月中旬頃

【大田】 금번 도지사회의(道知事會議)가 끗낫슴으로 충남도부군수회의는 오는오월중순경에 개최되리라고한다

[illegible]

奉天高等女學校擧行

【奉天】 [illegible]

開校劈頭부터 學級增設運動
安岳中學理事會募金

【安岳】 안악중학교는 이미보도한바와가티 벌써설립되여 개교까지하엿거니와 단학급으로서는 입학난이심한 이즘에잇서 십분의하나도 입학지원자를 수용할수업스므로 다시금우에 학급을증설하는것이 가장급무라고 일반이요망하는바인데 이러한추세가 잇슬것을안 안악중학기성회에서는 이미 학급증설의 예비책으로 십오만원의 기부금을낙서를 바다둔바가잇섯다 그런데 기성회로서는 학교설립문제에서 소용되는동시에 다시제이단으로 학급증설을 위하야 그기부금수합에 전력할시기에 도달하엿스므로 지난이십육일오후에 리사회를열고 그선후책과 모재우원을 결정한바가 잇다 이기성회석상에서 김씨문중의 잔금십일만원은 금월이십팔일까지 납입할것을 언명햇고 김홍석씨만원도 일간납부할것을 성언하엿스며 이에호응하여 원정보씨 최창학씨의 잔금도 불원납입될것으로 기대되는바 그전도는 탄탄하다고하겟다 그러데개중에는 소액기부자측에서 혹시성의를 결여한자가 업지안으나 이들은 학급증설이라는 대국적견지에서 좀더큰아량으로 희사하기를 바라는바이며 기성회로서는 여하한수단으로든지 기어히 목적을 달성하고야말 결심임으로 각자는 원만하고 신사적으로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奉天에拳銃强盜
現金指環을强奪潛跡

【奉天】 한동안 잠잠하던 권총강도가 또나타나 금품을 강탈도주하야버리엿다=시내상부지이경로대오십오호(市內商埠地二經路門牌五十五號) 대서관강상주식회사(大西關江商株式會社)근무 표윤일(表允一)외일명은 지난이십오일 오전열시경 두명의 권총강도가 돌입하야 표윤일외일명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과 반지 두개를 강탈하야가지고 비호가티 자취를 감추고말엇다 급보를접한 소관남시장 경찰서에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야 목하엄중한 경계망을느리고 범인체포에 전력중이나 아직 범인은 오리무중이라고한다

明禮簡易學校 開校式을擧行

【守山】 밀양군하남면명례리(下南面明禮里)는 호수삼백에 인구이천을 가진 농촌으로서 학교가 이개소가잇스나 입학아동수를 반수박게 수용치못하고 남어지는 배울곳이업서 거리에서 방황하고잇는 현상이라 이를목격한 유지들은 분기하야 지난이월이십일에 명례야학교에 모혀 명례간이학교기성회(明禮簡易學校期成會)를 속에서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바 일천삼백원의 기금이 모집되여 지난삼월말에 당국에 명례간이학교설립인가를신청한바 동월이십팔일부로인가가되여 공사비오백원을드려 이래교사신축에 노력중이든바 사월이십일경에 겨우교사의 완성을보게되엿스므로 지난이십일일오후두시에 개교식을거행하엿다

檢事의指揮로 支配人三名檢擧
大邱에鑛山詐欺綻露?

【慶北支社發】 대구부내모삼개회사(某三個會社) 지배인(支配人)세명과 부내청○○의 사무원김모(金某)와 박모(朴某) 세명은 대구부내에잇서도 상당한 지위에잇는바 이십오일오후한시쯤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대구검사(大邱檢事)의 지휘하에 대구서에 유치되여 방금수사주임 내동경부보(內藤警部補)담임으로 엄중히 취조를받고잇는데 공갈, 사기, 횡령의혐의로 사건내용을 극비밀에 부치고잇슴으로 상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모처에서 탐문한바에의하면 모광산(某鑛山)을 중심으로한 삼십만원매매사건이라는데 취조에따라 사건은 점차로 확대되리라고 추측되는바 일반은 이번사건이 최근에잇서서 큰사건임으로 극히 주목하고잇다

三驅逐艦鎭南浦入港

【鎭南浦】 진해요항부소속제이십구축대(驅逐隊)의 유, 시(蕣, 柿)세척은 지난이십칠일오전 칠시 진남포에입항하여 축항동안벽(東岸壁)에 계류되엿다는바 금번이 처음이라고하며 부에서는 판본부윤(板本府尹)을 비롯하야 다수관계자들이 출영하엿다고하며 이십팔일오후한시부터 부내고등여학교와 공청소의교 진남포소학교에서 일반에게 강연도잇섯다고한다

保寧産組定總

【大川】 보령군웅천시장(保寧郡熊川市場)에잇는 보령산업조합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 웅천보교에서 [illegible]

戰機切迫한 十四回全朝鮮蹴球戰
大會任員도벌써決定

【平南支社發】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와 본사평남지사 후원으로 오월십이일부터 사일간 평양부내 기림리(箕林里)공설운동장(公設球場)에서 개최될 제십사회전조선축구대회(第十四回全朝鮮蹴球大會)는 기일이 절자박두해짐에따라 주최측에서는 만반준비에 눈코뜰사이가업시 바쁘다 이번 평양시민의 명절이라고도할수잇서 축구도시 평양이 삼이만부민을 열광케하는 이축구대회의 개최일자가 발표되자 평양부내에서는 대회의 우승(優勝)을목표로 소학(小學)중학(中學)전문학교(專門學校)청년단(靑年團)실업단(實業團)등 각방면의 선수들이 맹연습을 계속하고잇서 벌써부터 굉장한기세를 올리고잇다 또한 전조선각지에서 참가규정에대한 조회가 답지하고 잇서서 금년대회의성황을 예측하기에 어렵지안흐며 절승 모란봉공원(牧丹峰公園)아래 공설구장 열사(熱沙)우에서 모교또는 자기의 단체의영예를 위하여 백열전을 연출할 수백명남아의씩씩한 모양을 지금부터상상하면서 대회개최기일을 초조히기다리게한다 작년도의 소학단(小學團)우승교 사인공립보교(舍人公小) 중학단(中學團)우승교 재령명신중학(載寧明新中學) 전문학교단 우승교 평양의전(平壤醫專) 청년단(靑年團) 평양오·삐단(O·B團) 실업단(實業團)은 진남포일광(鎭南浦日鑛)이 우승하엿다 상무이사(常務理事)와축구부 진행위원(進行委員)의회합석상에서 대회임원도 다음과가티 결정하여 대회의기운은 전개되고잇다

◇大會任員

▲會長 金能秀 ▲副會長 宋錫璨 ▲本部 金光信、朴永哲、金晚炯、韓鳳祥、崔瑞獻、金鍾璇、▲審判 金光信、車載昷、金基湧、朴永哲、金元福、韓龍浩、李貞植、潘在鎬、康基亨、金成煥、姜慶益、朱大德、朴仁植、崔永 國 李永煥 安洙翰 ▲記錄 金晚炯 韓載德 李仁明 金正錫 朴寅煜 李昊濟 朴根善 ▲設備 韓流良 韓龍浩 朴仁植 姜慶益 ▲救護 康德熙 李尙敏 石應元 金能基 李俊植

今春入試最後一戰
平壤三中合格者發表
그中에는內地人生徒도廿三名

【平南支社發】 평양서의 최후의일전인 제삼중학교의 입학시험은 시험문제의 누설사건등 말썽이 만흔가운데 수일동안 엄격히 고사를하여 이십팔일오전 영예의 합격자를 발표하엿는데 모두일백사십명중 내지인생도가 이십삼명이잇다

申基觀 高炳基 金寬拭 金承潤 方德善 元淳成 柳文錫 李珍相 劉東振 坂井一彦 中島實 金大賢 吳時豪 金象山 田秉瀾 許東植 徐珠龍 韓泳麟 李根洙 池榮華 金成鳴 鄭崙益 洪衛泰 朴重植 洪璟洙 金元植 李原宏 卓仁燮 崔順泰 全寬洙 吳仁興 李熙麟 李明濟 金相善 河用益 金衛大 康東元 朴熙重 行實節夫 秦澤成 居正治 瓜生新也 林在熙 安維善 李泰淵 洪濟八 金基鎬 任用淳 潘有相 李雲鎬 朴相植 周時鶴 池相弼 林寅鎬 李鍾英 金元根 貞濬 林鍾泰 朴庭秀 張正民 高東 鄭金瑨河 丁奎殷 朴俊益 金潤光 鎌崎英人 林春甲 朴在仲 金昌浩 朱日彌 崔在福 鄭在衢 李處華 朴壽植 朴在辰 金寶珉 金東宇 林昌善 金顯濟 金在範 折立信 高橋完治 金鼎九 崔熙貞 吳膺範 金昌煥 朴中順 尹昶賢 金喆淳 崔大成 崔鳳璧 曹成燦 園元龍生 神門重夫 大友實 井上一誠 梁楨弘 富永信夫 國崎才助 首藤實 田中龍治 谷三水谷宏 張龍成 金學善 金昌玉 柳載植

前崇中生은編入式 入學式은五月二日

【平南支社發】 신입생의 합격자발표까지맛친 평양 제삼중학교(平壤三中)에서는 개교준비에밧버 오월이일 오전열시부터 입학식(入學式)을 거행하는동시 계속하여 전숭실중학교생(前崇中生)의 편입식을 거행한다는바 이번 숭실중학생 전체의 편입도와 남은 오학년생 최후의 편입식이 열리게되엿다

讀者慰安唱劇 盛旺裡에閉幕

【谷城】 전남곡성군 옥과분국에서는 금월이십일일부터 삼일간 한일창극단(韓一唱劇團)을 마지하야 매야산업합오부의 할인권을진정하여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떨친 춘향전(春香傳)심청전(沈淸傳)흥보전(興甫傳)등을 상연하야 본보독자와 본보지국후원제씨를 위안하엿다는바 옥과초유의인기와 대성황을 이루엇다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作 金熊超畫 【92】

소굴 (六十)

사령들이 포교들의 상투잡고 또 웃잡아다미저서 잡아드러다가 뜰아래 꿀여 노흘때 대청우에서 『바루 명령에 올려매란』 하는 호령이 나리엇다 로밥이 여기 달려드는 사령들을 잡간 참오리고하고 곳 대청우를 치어다보며 『그저 몰으시드립루 소인이아는것은 다 고지곳대루 바루 알외겟소이다』 하고 말하야 돌아태의 사령이 서원이 차례로 그파 말을 바더올리엇다 『꺽정이의 기집이 어드서 사느냐』 『동소문안 숭교방(崇敎坊)에서 사옵는데 집을 찾기가 거북합니다 포교하나만 주시면 소인이 가치가서 들물가리 잡어다 바치겟소이다 그집에잇는사람이 꺽정이기집외에 늘근할미하나 기집아이년하나뿐이올시다 셋을 한데묵거두사 내하나못이 못되오니까 포교하나와 소인과 둘이가면 넉넉하외다』 대청우의 남치근이 돌우에섯는 부장하나를 아프로 갓가이 불러서 『포교 서넛더러 저놈을 압세우고 나가서 꺽정이의 기집파 그집에 가치 잇는것들을 다 잡아오라구해라 그집은단단히 봉쇄(封鎖)하구 이웃사람들을 불러서 풀한포기라두 일어지면 엄중히 최잘을 당할테니 잘 지키라구 일르라고 그러구 항쇄(項鎖)해서 끌구가게 해라』 하고 분부하엿다 포교들이 녀자가리 쇠사술로 로밥이의 목을 옭가서 개가티 끌고나간뒤에 꺽정이 줄개 [illegible] 로밥이의 근본과 행사가 그 [illegible] 얼것이 포교가 셋이나 가치 가게되엿더 [illegible] 돼가잇서서 도망할가망이 업는 까닭에 감착이 만히 변하야 요공하라고 김씨와 [illegible]

하대로 『김춘선이올시다』 『김춘선이냐』 로밥이가 가슴이 [illegible] 하고 대답하얏다 『네가 꺽정이의 부하노릇을멧해나 햇느냐』 『그럼 너는 너대루 도둑질하얏단말이냐』 『그럼 넌 꺽정이의 부하노릇은 하로두 한일이 업소이다』 남치근이 별안간 큰소리로 『천한놈 죽일놈가든이 뉘아페서 거짓말이냐』 호령하고 로밥이가 변명할사이도 업시 곳 뒤니어서 『그놈을 형틀에 올려매구 치도곤으로 되우 처라』 호령하는데 위엄이 찬서리가

는 원씨도 꺽정이의 기집이것을 포교들에게 일러바치어 주인김씨를 잡으러에 또 밤이의 말한것을 김씨에게 물어보는데 김씨가 목귀신같사로 원씨를 끌고들어가서 원씨와원씨집사람까지 다한께 포청으로 잡혀오게되엿다 김씨는 제친낭반 권씨의집 파탄으로 서울와서 사는동에 자칭 림선달이란자에게 욕을 보고 욕볼때 죽어맛당한것을 죽지못하엿다고못는데로 다 대답하고 원씨는당시재상 원계검(元繼儉)의 딸인것을 숨기고 서울여염가 기집아이로 팀가에게 잡혀와서 살앗다고 네댓번 다두쳐물어야겨우 한두마듸식 대답하엿다 둘이 다 꺽정이의 기집이로되 소위 림선달이 꺽정인줄도 몰으고 꺽정이가 유명한 대적인줄까지도 변혀 몰랏섯다 두기집의 초사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구원의 源泉

이상에 계속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복음중에 나타남을 말하엿거니와 끗흐로 생각할것은 신앙(信仰)을 요구함이라 사랑과 공의로 구원하는 능력이 잇는 복음이라도 신앙하지 안는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수 업다 혹시 어찌하야 밋는자만 구원하신다하면 이는 마치 『어찌 당신은 내가 입을 열지아니하엿다고 식물을 먹여주지 안는가』 하는것과 갓흔 말이 됩니다 어찌 무리한 말이 아니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히 녁이시는 고로 구원을 밧는자는 신앙으로 밧는자이라야 구원하신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업습니다 [illegible]

自動車 全!最高權威 自動車學校 入學卽必呈 來問歡迎

讓店 永樂町停留所前 サクラヤ時計店 黃金町三ノ七 櫻谷으로

朝報案內

音樂 用品 治料 社町二丁目 [illegible]

代理店及 男女社員 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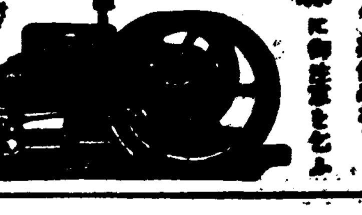
純胚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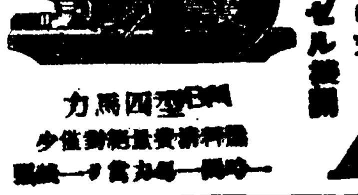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봄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슴

電話ノ革命!! 電話ガ秘密ニ 國産 「セクトフオン」 話ノ內容ヲ他人ニ聞カレズ通話同圍ガ騷騷シクモ靜問樣ニ通話 都市代理店募集(現錄進呈) 朝鮮總代理店 馬山府壽町五一 內外諸國特許品一手販賣 三益パテント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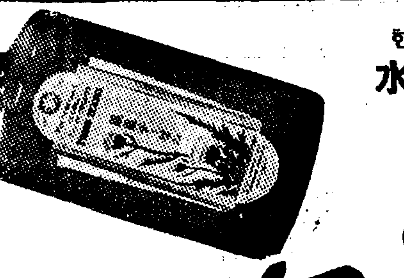
カタログ贈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長本局 一八八五 四七八四

アークロ式 ディーゼル機關 クボタ 石油發動機





藥用化粧水 美白化하고…… 살결이보드럽게 白粉타는물 얼굴의美白雅肌 녀까뜰白粉꺼풀豫防 여드름부스럼 小兒의땀띠 진무른데 蛋敗南京虫의가려운防止 에卓效를發揮합니다! 三五전 五五전



ルゼーチ鳥風

奉天測量學院生徒募集 ▲本科五十名 ▲速成科五十名 ▲研究科若干名 ▲出願期日四月三十日 ▲考査日五月三日 ▲學則要二錢切手 ▲奉天市十間房郵政管理局前 電話二一四六六番 振替奉天三三四七番

본보 慶北支社 大邱府京町 電話 二三四四番

목에 燥渴이나서飲料水를注意하신다면 胃液을稀薄케하는結果 消化不良을이르키고또腹痛을이르키는것입니다 「물을마시면仁丹을먹을것」이 實行이야말로胃液調節에決定的인效果입니다

淋疾には 白檀油に優る 福龍印の ネオ白檀油に限る 球もあり 類似品あり福龍印に御注意 總代理店 京城 株式會社 新井藥房 20球 25G 50球 250G 100球 500G

콜럼비아·포―타블

No. 288 ¥ 55.00 世界第一 性能優良

콜럼비아레코―드

五月新譜 꽃피는綠地 金海松 흘러간牧歌 朴響林 눈물의黃布車 劉鍾燮 暴風에우는꽃 金仁淑 妓生아울지마라 朴響林 비에젖는情話 劉鍾燮 풋김·치家庭 南一鸞·金海松 支配人된줄안千 南一鸞 Columbia

長期戰과經濟力 ③

四、公債消化도不足憂

이와가티 長期戰의影響、國力의大部分은 少數로消耗되나 [illegible] 公債消化力 [illegible] 滿洲事變發生以來 今年三月末까지의 六個年間에 總額四十五億圓、一年平均七億五千萬圓이 發行되엇는데 昭和十三年度의 總豫算은 二十八億六千七百萬圓及 臨時軍事費는 [illegible] 合計七十七億 [illegible] 그大部分은 公債로써 支辨되기때문에 [illegible]

五、國民의協力으로 惡性인플레를防止

[illegible]

朝鮮産靑果菜蔬 海外輸出積極化 具體案作成코저基礎調査

農林省에서는 國際收支均衡의國策에協力키爲하야 從來比較的等閑視되든 農產物의 輸出을積極化키로되어 主要蔬菜果實二十種을選定하야 海外進出策을 研究中인데 朝鮮으로서도 지금까지는 菜果를主로한 青果移輸出은 內地市場을 主로하야 十一年의 菜果移輸出總額二百九十三萬五千圓中 對外輸出은 七千五萬八千餘圓에不過하고 其中關東州滿洲向이 主要部門을占하고잇는 狀態인데 內地市場의 販路는年年擴大되는中이라고는하나 漸次飽和點에가까울것인一方 時局關係上 海外輸出의振興을 計圖할必要가잇서서 今後는 北中支는勿論 現在小額이나마 輸出되든 蘭領印度、英領海峽植民地의 市場擴張、新市場의 開拓에 注力하는 同時에 菜果以外의 農產物輸出에 必要를認하고 時局對策特히 菜果를主로한 農林局關係事項으로서 具體案을作成코저 基礎調査에着手하얏다 朝鮮農產物의 海外輸出額은 昭和十一年에는 二百五十四萬圓에 不過하얏스나 十二年에는 三百六十三萬七千圓에 達하얏는바 主要한것은米、麥類、豆類、穀物、蔬菜、苹果、梨、栗等이다

重要農產物 十二年中輸出高

昭和十二年의 重要農產物輸出高는 如左하다(單位千圓)

米	一、三八二
麥類	一四三
豆類	一六
穀粉	九七二
蔬菜	七〇
苹果	四五九
梨	二〇
栗	二五
其他果實	三四

會社總會一束

北鮮製紙 北鮮製紙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第六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足立副社長司會下에 一、第六期營業報告 決算書類承認及利益金處分의件 一、取締役全員任期滿了에對한改選의件을 附議하고 一號案을 異議업시 可決하엿다 어어서 二號案은 議長一任으로하고 左의全員이重任으로決定되엿다 藤原銀次郞 足立正 藤原豐藏 橫井牢三郞 大橋新太郞 高島菊次郞 田中治郞 井上憲一 朴興植 그리고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利益金 一、〇八一、三八〇▲前期繰越 一五〇、一七一▲合計 一、二三一、五五一▲法定積立 一〇〇、〇〇〇▲別途積立 二〇〇、〇〇〇▲株主配當(年一割) 五〇〇、〇〇〇▲役員賞與 五〇、〇〇〇▲恩給基金 五〇、〇〇〇▲後期繰越 三三一、五五一

不二興業 不二興業에서는 廿八日 午前十時부터 同本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三井專務司會下에 一、第廿四期營業報告、財產目錄、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承認及利益金處分의件(原案대로承認可決) 二、取締役 澤村九平 監査役高田兵次郞 任期滿了에 對한改選의件(右取締役에 澤村九平 監査役에高田兵次郞 再選重任) 三、取締役二名增員選擧의件(土屋泰助、辻善一當選) 四、重役報酬의件 의四項을 可決하엿다 利益金處分案은 一分增인 七分配로如左하다(單位圓) ▲當期純益 五〇七、二二五▲前期繰越 六八、六二二▲合計 五七五、八三六▲法定積立 三〇、〇〇〇▲株主配當 一八〇、〇〇〇▲役員賞與 二五、〇〇〇▲退職基金 三〇、〇〇〇▲別途積金 一〇、〇〇〇▲後期繰越 一一、八三六

社長에 三井氏就任 不二興業에서는 今二十八日의 定時總會에서 新取締役二名을 新選하야 新取締役에 殖銀檢査課長인 土屋泰助氏及 同社의 辻善一氏를昇格시켯는데 總會後의 重役會에서 重役增員에 伴하는機構改正을 行하야 社長에 專務三井榮長氏가 就任하고 土屋氏는 常務에 辻氏는 取締役兼支配人에 就任케로되엿다

朝鮮郵船 朝鮮郵船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 同社에서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第二十六期後半年度營業報告 決算書類承認의件 二、同上利益金處分의件(六分配當) 三、監査役任期滿了에對한改選의件 四、取締役松井房治郎氏死去에件하는補欠選擧의件 五、同故松井氏에 慰勞金贈呈의件을 附議하고 一、二號를 異議업시可決하고 監査役은 [illegible] 松井氏後任은 [illegible] 松井氏의 慰勞金 [illegible] 으로決定하엿다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利益金五三二、一一七▲前期繰越 一二三、一〇五▲合計 六五六、二二二▲法定積立 三五、〇〇〇▲別途積立 二五〇、〇〇〇▲役員賞與 五〇、〇〇〇▲配當(年六分) 一九五、〇〇〇▲次期繰越 一二六、五二二

內部保留百四十萬圓 朝郵는 本年上期의 決算에잇서서 五百三十七萬圓의 總收入에서 [illegible] 百六十七萬四千圓의 利益이엇는데 其中 船價償却二十七萬圓 特別船價償却四十五萬圓 船舶修繕積立金二十萬圓 特別船舶修繕積立金 [illegible] 合計百十四萬圓의 償却을 行함과 法定準備金의三萬五千圓 別途積立金의 二十五萬圓을 加하면 實로 百四十萬圓의 內部保留를行하야 前期의 內部保留合計六十萬圓의 二倍強에 當한다 同社에서는 右內部保留金의 一部約二十萬圓을 投하야 愛國公債를買入하고 海運報國의 實을 擧하기로되엿다

地方豫算膨脹 總計九千三百萬圓 前年比八百三十萬圓增

總督府內務局調査에依한 全朝鮮各道의 今年度豫算은 一般會計에엇서 八八、七六八、六八一圓(前年度比四、二二三、三八一圓增)特別會計에엇서 四、四六六、一〇八圓(前年度比四、一〇四、一四五圓增)으로 總計九三、二三五、五二六圓 [illegible] 이라는 膨脹을示하엿는바 各道別內譯은如左하다(單位圓)

道	豫算	對前年度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俸給一部醵出 愛國公債買入 貯銀에서先鞭

貯銀에서는 銃後報國의 一端으로서 今回行員의 消費節約貯蓄奬勵에 努力中인데 行員은俸給의百分五 [illegible] 俸給의百分三을 除하야愛國公債를 購入케로되어 五月一日부터 實施케로 되엿다는바 朝鮮에서 俸給으로 公債를 購入하은 貯銀이 最初이고 銀行會社도 이에 倣하리라한다

民間事業休止 商品界는不振 三月中京城商品과金融

米 在米의 減少豫想과 諸物價高의 大勢上으로 米에對한買氣가 誘發되어 七、八日頃의期米는 六十錢의 昂騰이엇스나 旬末에 至하야 翻觀入氣로變하얏다 그러나 浮動米가적음으로 正米共히 六十錢의 品騰이엇스며 [illegible] 十二日發表의 本月一日現在米는 朝鮮一一、五一六千石 [illegible] 內地四六、二九三千石 [illegible] 으로서 우선需給上에 影響이적으나 同日第三次百萬石買上의 發表가잇서서 期正米가모다 再次硬化되고 十六日은 玄米三三圓二〇錢 正租九圓四五로 一月以來의 最高值를示하얏스나 在米가 豐富함으로 [illegible] 三十一日決定된 買上數量은內地六十五萬石 朝鮮三十四萬石合計九十九萬石의好成績을示하엿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等玄米 [illegible]

粟 輸入漸增期에 入하엿스나 本年은 極度로 取引이 不振을 呈하엿다 [illegible]

大豆 去月下旬以來 [illegible]

小麥 內地小麥이 漸落되모로 氣配는 月始부터 月末에亘하야 漸低를呈하얏다 [illegible]

繭 [illegible]

肥料 [illegible]

綿絲布人絹 [illegible]

礦油 [illegible]

土建材料 [illegible]

金融 紙幣、倫敦等海外中心市場은株式、物價低迷狀態를 [illegible]

株式 續崩後에 少返

今日의市勢(廿八日)

前場鐘紡低 昨前場激落後 上海海關接收等을 傳하야 一息裡에 少戾를보이고 今朝의外電高로 東阪의 寄付는 少堅狀이엇스나 餘震은아직도 繼續되어 昨日의 東新中心으로부터 今朝의 鐘紡의 二百五十圓臺割의循環的崩壞를 보여 二百四十六圓丁의 低價를示現하고 어에따라諸株一齊軟調로 東新도 百四十二圓九의 新低價를 示現하엿는데 大引은 少堅으로 東新百四十四圓一 鐘紡二百四十七圓九에 場을마치엇다

○株寸同業組合總會內地側出席=創立總會를終了한 朝鮮株寸同業組合에서는 來三十日午前九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第二回總會를 開催키로 되엿는데 同日은 業者總督府關係官外에內地共販의 加藤販賣部長도出席하야 內鮮協定 其他에 對하야 協議하리라고

後場少返 後場은 東新六低、鐘紡一、二低로 再弛寄付後 鐘紡續崩에따라 다시突込하엿스나 그後利喰으로 少返하야 少堅으로引엿다

鐘紡更崩

[illegible]

底入接近

[illegible]

市場六感

期米 少戾이나 頭重

前場少戾 [illegible]

後場細刻 [illegible]

持米側의態度 [illegible]

當限一代記 [illegible]

國債閑散 [illegible]

仁川當限受渡內容

各地當限受渡內容

朝取期米取組內容

正米 定期高로 反撥

京城強調 [illegible]

仁川强調 [illegible]

釜山堅調 [illegible]

大邱少返 [illegible]

群山昂進 [illegible]

木浦保合 [illegible]

今日財界(廿八日)

[illegible]

海外經濟(二十七日)

銀行券

金利·手形交換

鰯油粕·麥粉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朝取短期賣買高

朝取主要取組高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現株

京城物價(廿八日)

[illegible]

期米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揮發油石油重油販賣開始
京城府永樂町二丁目(永樂ビル)
朝鮮石油株式會社代理店
株式會社 第一社京城支店
電話本局② 六三四一番
本社 水原郡水原邑本町一丁目
電話水原長 一一〇番 三二三番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一二六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期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